

## 제 19회 교수학습지원센터 성과 전시회

# 2024학년도 1학기 학습법 소모임 [교과스터디]

우수

우수팀 명

누가 내 머리에 A+ 쌌어

학습 내용

운동생리학

학습 기간

24. 4. 24. ~ 6.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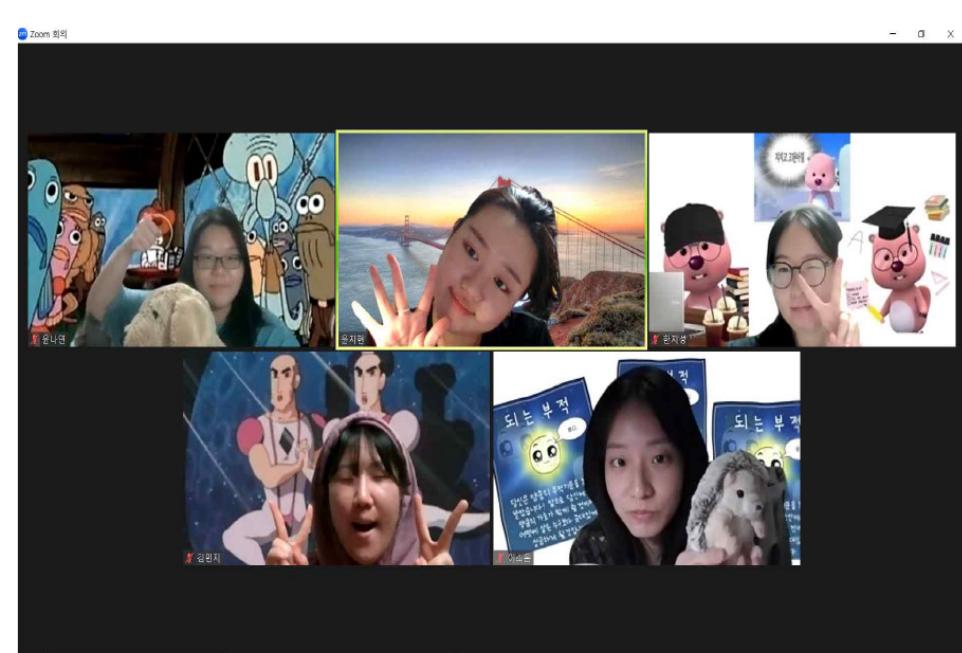
팀원

김민지, 이소은, 윤지현, 윤나연,  
한지성(의생명과학과 21)

### 학습 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4/24	18:11 ~ 20:11	ZOOM	운동생리학 1~6주차 전 범위 중, 1~3주차 내용인 생리학의 기초, 세포의 기능, 생체에너지학, 인체내부의 환경조절 단원에 나오는 내용을 중간고사에 대비해 종합정리해보는 시간이었다. 운동생리학의 역사와 미래를 바탕으로 운동생리학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고, 생리학 과정에서 기초가 되는 물질대사와 세포의 구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보냈다. 생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항상성 (Homeostasis)이었고 이를 조절하는 여러 메커니즘을 예시로 공부했다. 생체에너지학 단원에 나오는 꼭 알고 있어야 할 기초적인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더 공부에 매진했다.
5/1	18:08 ~ 20:09	ZOOM	위에 이어서, 운동생리학 4~7주차인 생체에너지학, 운동대사, 운동과 호흡의 반응, 면역반응에 대해서 정확히 학습했다. 중간고사가 얼마 안 남은 시점이었어서, 중요한 핵심 내용들을 짚고 넘어갔다. 그중에서도 세포가 포도당으로부터 에너지인 ATP를 얻는 과정에 대해 추가로 지난주에 이어 더 공부해주었다. 우리 조는 복잡한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기울였다. 그리고 운동을 지속함에 따라 생리적으로 나타나는 변화에 대해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 호르몬들이 분비되는 내분비샘과, 각 호르몬의 역할 및 기능 수행에 대해서도 열심히 암기했다.
6/5	18:05 ~ 20:06	ZOOM	기말고사 범위인 8~14주차 범위 중 8, 10, 11주차(신경계 구조 및 운동 조절, 골격근, 운동 시 순환기 적응)에 대한 내용들을 나눠 살펴보았다. 이때는 근육의 구성과 수축의 과정을 생리학적으로 공부해 보았고, 각 근육의 종류와 그 차이점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공부하였다. 어려운 이름을 가진 근육들의 기능에 대해 한번 더 상기시키고, 그런 근육들의 중요한 생화학적 특성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6/12	18:07 ~ 20:10	ZOOM	운동생리학 8~14주차 전범위 중 12, 13, 14주차에 해당하는 운동 중 호흡조절, 운동 중 산연기 평형, 체온 조절 및 트레이닝의 생리학 단원에 대해서 종합 정리를 하는 시간이었다. 이는 운동 과정에서 심장을 비롯한 순환계의 변화와 호흡계의 원리도 이해하고 암기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추가로 체온과 산-염기 평형과 운동의 상관관계에서도 공부해 보았다. 생활 운동지도사 2급 기출문제들을 찾아서 다같이 풀어보았다.

### 활동 사진



### ▶ 종합 의견

운동생리학 스터디 활동을 통해 우리는 운동과 신체 기능에 대한 생리학적 이해 및 연관성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고, 기틀을 다질 수 있었다. 이 과목은 이론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지식이 많아 더욱 흥미롭게 다가 왔던 것 같다. 스터디를 통해 선 서로의 경험도 공유하고, 그 운동 방법이 실제로 해봤을 때 어떤 방식으로 근육이 움직이고, 그것을 토대로 하여 원리들을 더 확실히 이해하는 데 용이했던 것 같기도 하다. 그리고 학문적인 내용 말고도, 실제 운동 방법들이나, 운동 종류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 볼 수 있어 아주 큰 도움이 된 것 같다.

특히, 비대면으로 모여 진행한 그룹 토론 자체가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각자가 지루해지지 않게 운동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도 해보고, 공부 방법이나 내용 이해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주고받으며, 서로가 생소하다고 느끼는 내용들에 대해 파악해 가는 데에 있어, 같이 스터디를 구성해서 공부해 본다는 것이 매우 유익했다. 이 과목을 통해 운동에 대한 생리학적 이해에 대해 더 정확히 알고, 우리가 그동안 간과했던 개념이 무엇이었는지도 알게 되면서 우리들을 돌아보게끔 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운동 습관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스터디 활동은 즉, 협력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셈이다. 각자 이해한 내용을 설명하고, 다른 사람의 질문에 대답해 주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상호작용은 어쩌면 서로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할 기회를 제공해 주어서 보람있었다.

이번 스터디 경험은 단순히 운동생리학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같이 공부하면서 연대를 쌓고, 앞으로 계속해 나갈 전공 공부에 대한 훌륭한 뒷받침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혼자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다같이 공부하면서 머리를 합친다는 것은 사실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년, 매학기 하고 있다. 또한 우리가 함께 공부한 시간은 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는 데 분명히 큰 도움이 되었고, 이는 과학적인 측면 이외에도, 앞으로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관심 있는 운동을 했을 때 어떤 효과를 불러오는지 알게 되어서 나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다양한 주제로 스터디 그룹을 이어가며,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발전해 나가는 더 나은 우리가 되고 싶다.



## 제 19회 교수학습지원센터 성과 전시회

# 2024학년도 1학기 학습법 소모임 [교과스터디]

우수

우수팀 명

너 p야? 아트테라p

학습 내용

미술치료 사례연구

학습 기간

24. 5. 19. ~ 6. 5.

팀원

김시연, 박소현, 임나경  
(미술치료학과 21)

### 학습 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5/19	21:53 ~ 00:09	ZOOM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교재 및 참고 자료를 바탕으로 초기 성인의 이론적 개념 정리 진행.</li><li>초기면접(초기 면담) 의미와 개념 정리.</li><li>상담 신청서 및 미술치료 등으로 제작 후 작성. 각자 상담 신청서 및 사례 개념화 작성.</li></ul>
6/3	22:40 ~ 00:51	ZOOM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미술치료 참여 대상자에 따른 프로그램 목적과 목표 설정.</li><li>목적과 목표에 따른 15회기 프로그램 작성.</li><li>프로그램별 세부 사항 및 주의사항 작성.</li><li>부록 제작.</li></ul>
6/4	19:00 ~ 21:00	면학관 21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그림 진단 검사 분석 기록지 작성</li><li>각자 혹은 타인의 그림 검사 분석 후 피드백 진행.</li></ul>
6/5	18:04 ~ 20:18	면학관 21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초기 성인 개념 재정리</li><li>프로그램 목적 및 목표 정리</li><li>5차시 프로그램 시연 진행.</li></ul>

### 활동 소감

#### ▶ 종합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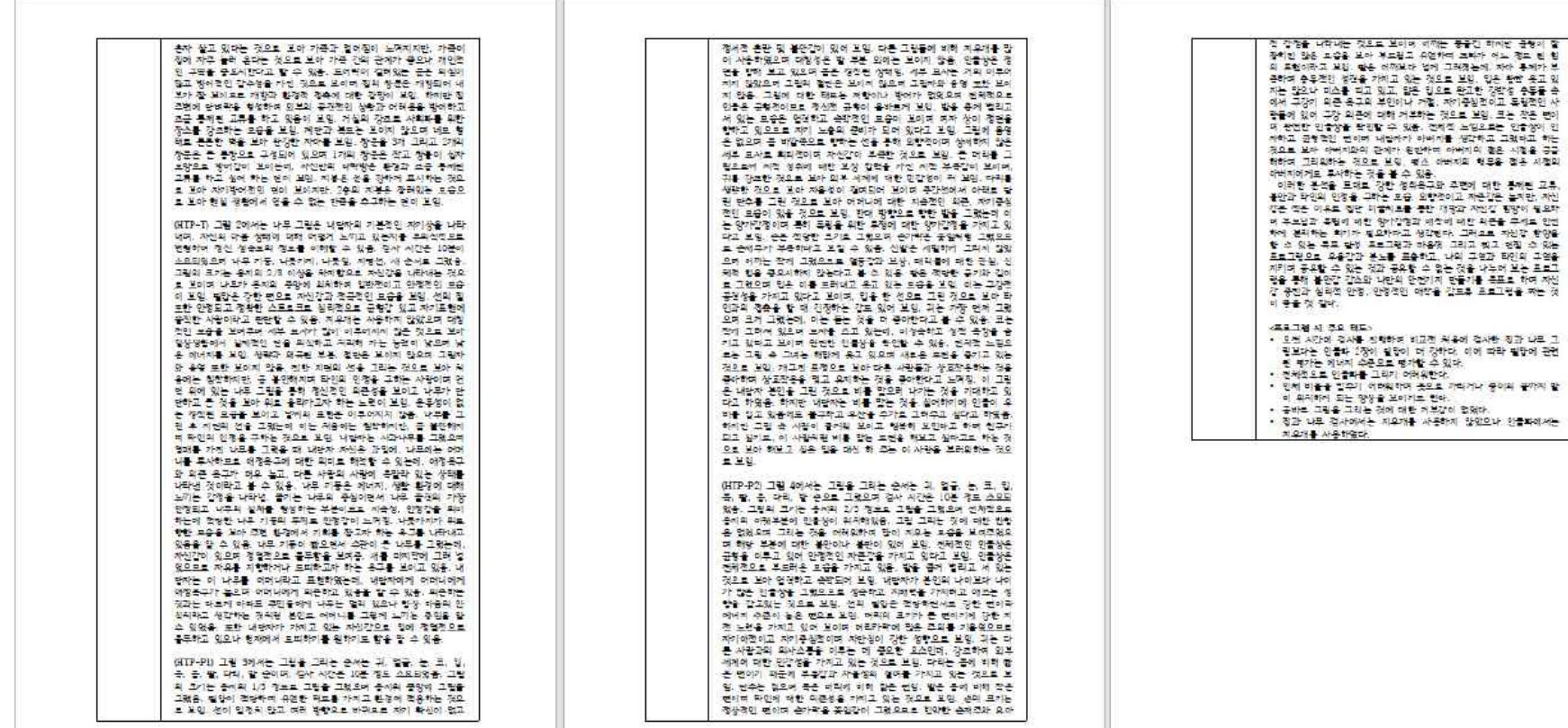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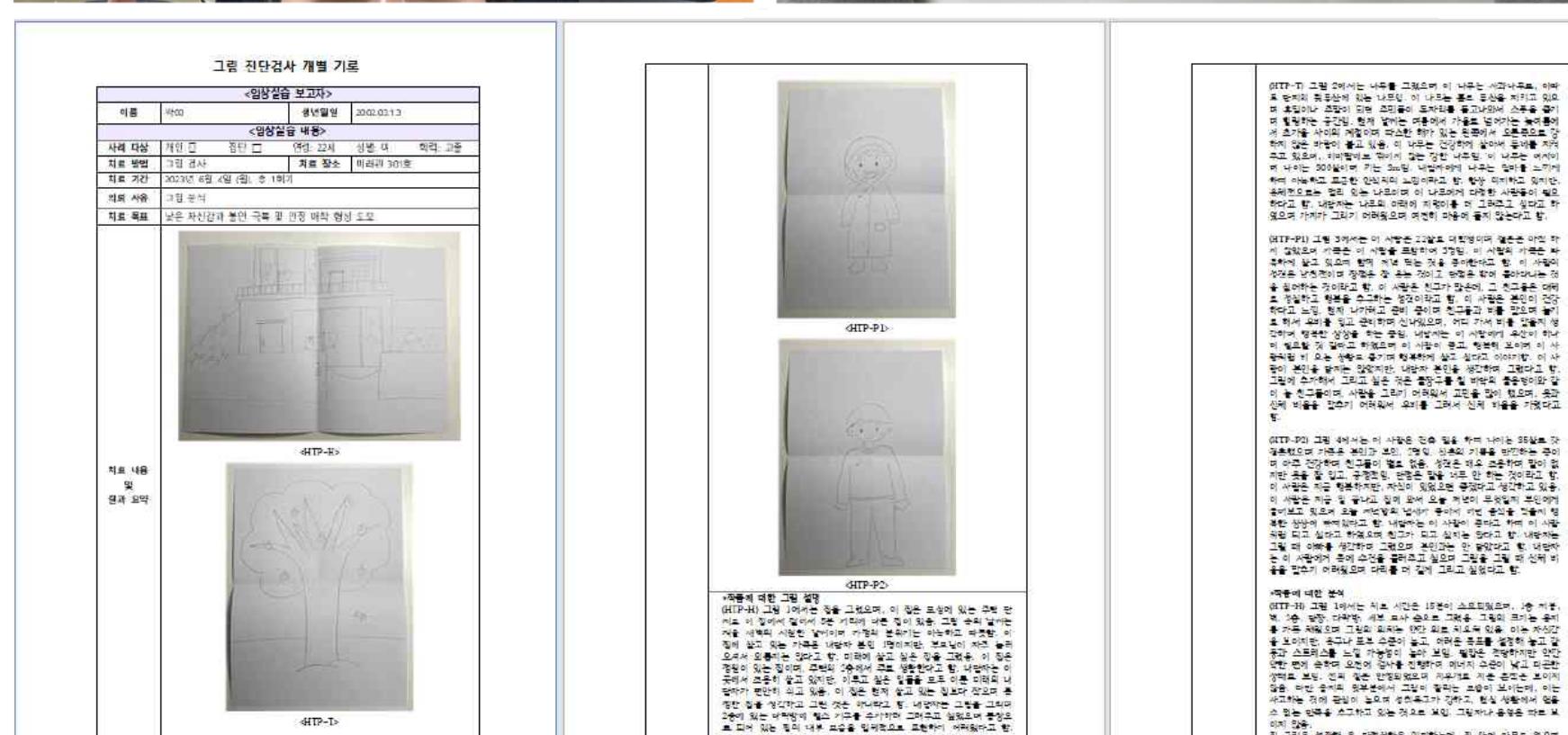
이번 소모임 활동을 통해 전문적인 미술치료의 사례를 파악하는 경험이 되었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교재와 참고 자료들을 토대로 초기 성인의 이론적 개념을 정리하는 활동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하고, 이론적 기반을 확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각 이론을 정리하고 사례에 적용하여 실제 상황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초기 면담은 상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소모임을 통해 초기 면담의 의미와 개념을 이해하고,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공부하고 연습해 보는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이는 상담 신청서 및 미술치료 등으로 제작 역시 작성하는 과정을 배우고 상담의 목적과 방법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경험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 각 팀원이 초기 성인을 대상으로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를 설정해 맞춤형 회기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직접 프로그램별 세부 사항과 주의사항, 부록 등을 준비하면서 나중에 직접 실습에서 사용될 수 있는 회기를 구성할 수 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위 프로그램을 직접 진행하고 서로 피드백하는 과정을 통해 소모임은 팀원들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한 활동을 통해 팀원들은 각자의 경험과 성취감을 나눌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 활동 사진



▶ 김시연 : '미술치료 사례연구'라는 수업을 통해 다양한 사례와 이론을 글과 사진으로 볼 수 있었더라면 이번 소모임에서는 직접 경험해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미술치료의 시작인 초기 면담을 기반으로, 사례분석, 프로그램 계획, 프로그램 진행을 하며 학부생으로서 진행하기 어려운 과정들도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서로 면담과 회기 진행을 하며 피드백하는 과정에서 치료사로서 어떠한 단어와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고 실제 환경에서는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생각해 볼 기회였습니다. 이번 소모임을 통해 논문과 수업에서 보면 사례 과정들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 박소현 : 이론 위주의 소모임을 줄곧 해왔었는데, 이번 기회에 실제 활동 위주로 소모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조원들과 함께 사전 면담지를 작성하고, 그림 검사를 분석해 보고 회기를 직접 구성하여 실제로 주 치료사가 되어 서로에게 회기를 진행해 보는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학부생 신분으로는 어려운데, 멀리 보지 않고 가까이에 있는 서로에게 직접 회기를 진행해 보는 경험이 큰 자양분이 될 것 같고, 미술치료를 받아보는 경험을 통해 나라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고, 내가 내담자라면 어떤 기분이 들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임나경 : 이번 학기 교과 스터디 소모임을 하면서 혼자라면 절대 경험해 보지 못할 경험과 학습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미술치료 사례연구' 수업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들어볼 수 있지만, 말과 사진으로 간접적으로만 사례를 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아쉬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소모임을 통하여 평소 미술치료에 열정이 가득한 학우들과 모여, 모의 미술치료를 사전 면담부터 계획, 진행까지 직접 진행해 볼 수 있었다는 점이 그 아쉬움을 해소해 주었습니다. 특히, 학부생 과정에서 사전 면담을 진행해 볼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실제 사전 면담을 하는 것처럼 서로에게 인터뷰하며 서류를 작성해 본 경험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전 면담을 진행하고 서로에게 피드백까지 주는 과정에서 사전 면담에서 사용해야 할 적절한 언어와 말투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눈빛, 면담할 때의 주변 환경 등까지 섬세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앉아서 이론을 학습하는 것만이 공부라고 생각했던 저에게 실제 행동으로 연습하는 것 또한 공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소모임이었습니다.

## 제 19회 교수학습지원센터 성과 전시회

# 2024학년도 1학기 학습법 소모임 [교과스터디]

우수

우수팀 명

쏘's

학습 내용

PR기획

학습 기간

24. 5. 6. ~ 5.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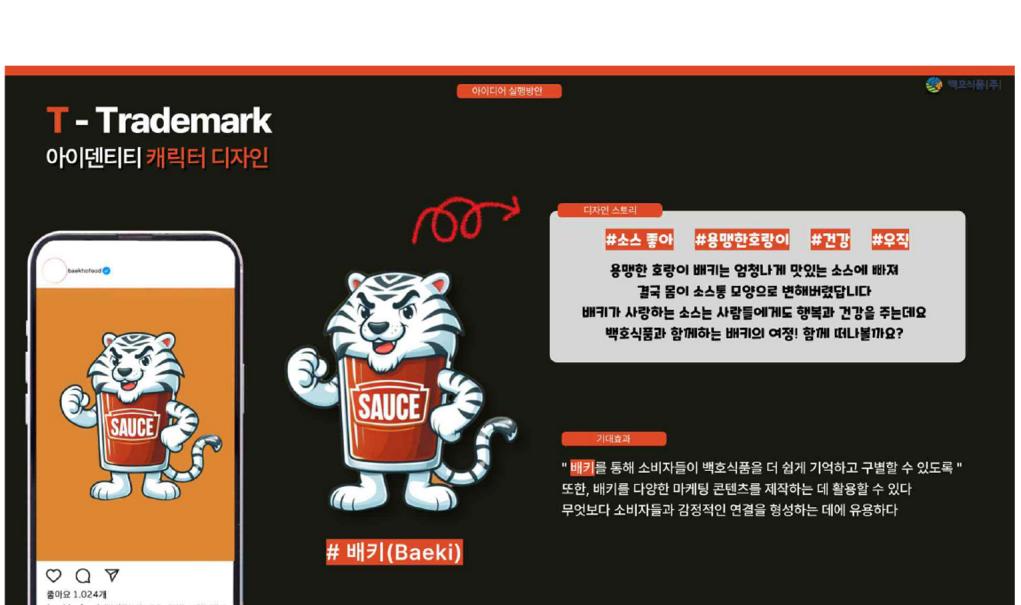
팀원

박소연, 고서진, 안세현  
(의료홍보미디어학과 22)

### 학습 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5/6	21:05 ~ 22:00	구글 미트 (비대면)	PR 기획 기말고사 준비 기획안 작성 활동으로 • [I. 상황분석] 中 1. 개요 / 2. 회사에 관하여 / 3. 내부 상황 분석 / 4. 외부 상황 분석에 대해 회의 전까지 각자 조사하여 정리한 내용을 공유함 • [II. 문제점 도출 / PR 목적] 중 문제점 4가지 확인 및 PR 목적을 2문장 정도로 정리함 • B2B 마케팅 개념 및 사례를 조사하고 정리함
5/9	15:30 ~ 17:30	미래관 301호 (대면)	PR 기획 기말고사 준비 기획안 작성 활동으로 • [I. 문제점 도출] 中 1) 제품 경쟁력 저하 / 2) 제품에 비해 부족한 기업 인식 / 3) 마케팅 및 브랜딩의 부족 + 부족한 SNS 홍보 활동에 대해 회의 전까지 각자 조사하여 정리한 내용을 공유함 • [III. 공중 분석] 파트의 세분화로 [2. 우선순위 설정] 부분을 1) 타깃 공중(납품업체) 2) 영향력 공중(소비자, 지역사회, 언론, 경쟁 식품업체)으로 결정 • 이어지는 '2) 제품에 비해 부족한 기업 인식'의 근거자료로 <네이버 쇼핑> <쿠팡>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 검색 결과를 캡처해 분석 후 공유함
5/14	15:30 ~ 18:00	미래관 301호 (대면)	PR 기획 기말고사 준비 기획안 작성 활동으로 • [II. 문제점 도출] 中 추가적인 문제점인 4) 회사 웹사이트 개편 필요성 5) 회사 주변 인프라 미흡 2가지를 더 찾음 • [III. 공중 분석] 파트의 세분화로 결정한 [2. 우선순위 설정] 부분을 소비자 / 백화식품이 납품하는 협력업체 / 집밥을 선호하는 일반 소비자 계층 / 1인 가구로 생활하는 소비자 계층 → 더 세분화 2) 영향력 공중(소비자, 지역사회, 언론, 경쟁 식품업체) 각각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공유함
5/16	15:30 ~ 18:00	미래관 301호 (대면)	PR 기획 기말고사 준비 기획안 작성 활동으로 • 각자 구상해 온 스토리텔링 안을 이야기하며 공유해주고, 우리의 컨셉이 될 슬로건 22가지를 짐 → <기획 자체의 제목>이 될 슬로건은 <건강과 안전을 담은 백화식품, 우리의 영양 파트너>로/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들의 제목>이 될 슬로건은 <TRUST 백화식품>으로 결정 • [IV. 주요 공중별 PR 프로그램]에 들어갈 아이디어 구상

### 활동 사진



### 활동 소감

#### ▶ 종합 의견

이번 학기 PR 기획 소모임은 각자의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값진 경험이었다. 팀장으로서 주제 선정부터 분석, 아이디어 구상, 발표회 준비까지 이끌어가는 과정은 어렵기도 했지만 보람찼다. 상황분석부터 문제점 도출까지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PR의 기초를 튼튼히 다질 수 있었고, 각자의 의견이 모여 완성된 기획안은 우리의 협업 능력과 창의성을 보여주는 결과물로 남았다. 특히 B2B 마케팅 사례 공부와 내부·외부 상황 분석을 통해 실제 기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실무적인 통찰력을 얻게 되었다. 회의를 통해 도출한 'TRUST 백화식품'과 '건강과 안전을 담은 백화식품, 우리의 영양 파트너' 슬로건은 문제 해결의 방향을 명확히 잡아주었으며, 각자 구상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PR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었다.

처음 경험하는 PR 기획의 어려움 속에서도 팀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아이디어를 나누고 분석하면서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기획안이 점점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매우 만족스러웠다. 또한, 회의와 발표를 통해 얻은 피드백은 우리의 기획안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전공과 관련된 실무 능력을 성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소모임의 성과는 개별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팀워크와 협업의 중요성을 체감하게 해주었으며, 앞으로의 PR 기획 활동에 있어 소중한 밑거름이 될 거로 생각한다. 이러한 소모임 활동은 우리의 전공 관련 역량을 한층 높이는 소중한 경험이었고, 함께 노력해 준 팀원들에게 고맙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다.

▶ 박소연 : 한 학기 동안 팀장으로서 소모임을 준비하고, PR 기획 결과발표회를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팀원들과 매 주제에 대해 머리를 맞대어 공부하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해 보는 것은 전공과 관련한 역량 성장에 있어 좋은 경험이 되었다. 무엇보다 매번 열심히 주제에 대한 준비를 해주고, ppt 구성·기획안 작성까지의 과정을 도와준 팀원들에게 고맙다.

▶ 고서진 : 처음 진행해 보는 PR 기획이었는데 역시 기획하는 것은 어렵다고 느꼈다. 분석하는 과정에서부터 막막함이 있었고 이를 문제점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많았다. 하지만 팀원들과 회의하면서 그 해결점을 찾아나갈 수 있었고 마무리할 수 있었다. 아직은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좀 더 경험하다 보면 실력을 키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 안세현 : 이렇게 자세히 무언가를 분석해 보고 문제점을 찾는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처음이라 많이 어렵고 복잡했다. 그래도 열심히 무언가를 계속 생각해 내고 아이디어를 구상하며 팀원들과 함께 분석하고 문제점도 도출하는 과정을 통해 점점 완성 되어가는 기획안을 보니 뿌듯하고 만족스러웠다.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



## 제 19회 교수학습지원센터 성과 전시회

# 2024학년도 1학기 학습법 소모임 [교과스터디]

우수

우수팀 명

오잉

학습 내용

학습심리학

학습 기간

24. 5 . 5. ~ 5. 26.

팀원

김예림, 박시언, 손재은, 이은표  
(상담심리학과 22)

### 학습 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5/5	20:00 ~ 22:00	미래관 310호	습관화의 정의 및 특징 => 수업 시간 때 학습했던 '습관화'에 대해서 복습하고 이를 자신만의 언어로 변환시켜 습관화를 재정의한다.
5/12	20:00 ~ 22:00	미래관 310호	습관화의 임상적 사례 조사 1 => 교재를 통해 학습 내용을 복습하고, 관련 논문을 통해 임상적 사례를 조사한다
5/19	20:00 ~ 22:00	미래관 310호	습관화의 임상적 사례 조사 2 => 교재를 통해 학습 내용을 복습하고, 관련 논문을 통해 임상적 사례를 조사한다
5/26	20:00 ~ 22:00	미래관 310호	스터디 1~3주차에 학습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보고서 작성 => 스터디 활동을 통해 학습 및 논의하였던 내용을 기반으로 보고서를 작성한다.

### 활동 사진



2024학년도 1학기 학습법 소모임 결과보고서  
: '습관화' 임상적 관점 선행 연구 보고서



스터디 과목	학습심리학
학년 / 이름	2학년 / 김예림
	2학년 / 박시언
	2학년 / 손재은
	2학년 / 이은표



### 활동 소감

#### ▶ 종합 의견

이번 소모임을 통해 다양한 배움을 얻은 경험을 종합해 보면, 여러 측면에서 학습에 큰 도움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혼자 공부할 때는 이해가 잘되지 않았던 개념들이 팀원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더 명확해졌다. 교과서나 논문을 읽으며 혼자 고민하던 부분도 팀원들의 질문과 설명을 통해 쉽게 풀렸다. 특히 팀원들이 제시한 다양한 예시와 설명 덕분 습관화에 대한 이해가 훨씬 쉬워졌다. 혼자 공부할 때 놓쳤을지도 모를 중요한 사항들을 함께 발견할 수 있었던 점이 매우 유익했다. 또한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이 사고의 폭을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나 혼자만의 생각에 갇히지 않고, 다른 친구들의 의견과 생각을 들으며 나의 관점도 더 확장되었다. 예를 들어, 습관화라는 주제 하나만 두고도 여러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경험은 단순히 지식 습득을 넘어, 문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는 능력을 키워주었다. 더불어 습관화와 관련된 여러 임상적 연구를 통해 이론적인 부분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연구 사례들을 통해 이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니 이해가 훨씬 쉬워졌다. 예를 들어, 특정 자극에 대한 동물의 반응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연구를 통해 습관화의 메커니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실제 사례들은 이론의 중요성을 더 잘 이해하게 해주었다. 마지막으로, 습관화 외에도 다양한 학습 이론들을 함께 공부하고 싶은 욕구가 생겼다. 특히, 지각 학습에 대한 연구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이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 앞으로 소모임에서 이러한 주제들도 함께 논의하며 더 많은 것을 배워나가고 싶다. 결론적으로, 이번 소모임은 서로의 질문과 설명을 통해 복잡한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다양한 의견을 통해 사고의 폭을 넓히며, 실제 연구 사례를 통해 이론의 적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앞으로 더 다양한 학습 이론들을 탐구하고 싶은 의욕을 불러일으켰다.

▶ 김예림 : 혼자서 공부할 때는 이해가 잘되지 않았던 부분이 많았다. 교과서나 논문을 읽을 때, 개념이 잘 와닿지 않거나 이해가 어려운 부분에서 혼자 고민하곤 했다. 그러나 팀원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서로의 질문과 설명을 통해 복잡한 개념들이 더 명확해졌다. 특히, 팀원들이 제시한 다양한 예시와 설명 덕분 습관화에 대한 이해가 훨씬 쉬워졌다. 혼자서 공부할 때 놓쳤을지도 모를 중요한 사항들을 함께 발견할 수 있었던 점이 정말 좋았다.

▶ 박시언 : 이번 소모임을 통해 가장 크게 느낀 것은,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이 사고의 폭을 넓히는 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였다. 나 혼자만의 생각에 갇히지 않고, 다른 친구들의 의견과 생각을 들으면서 나의 관점도 더 확장되었다. 예를 들어, 습관화라는 주제 하나만 두고도 여러 가지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경험은 단순히 지식 습득을 넘어, 문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는 능력을 키워준 것 같다.

▶ 손재은 : 이번 소모임에서 습관화와 관련된 여러 임상적 연구를 보고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이론적인 부분을 공부할 때는 단순히 개념을 외우는 데 그칠 때가 많았는데, 실제 연구 사례들을 통해 이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니 이해가 훨씬 쉬워졌다. 예를 들어, 특정 자극에 대한 동물의 반응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연구를 통해 습관화의 메커니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이런 실제 사례들은 이론의 중요성을 더 잘 이해하게 해주었다.

▶ 이은표 : 소모임을 통해 습관화에 대해 학습했지만, 이 외에도 우리가 배운 다양한 학습 이론들을 함께 공부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수업 시간에 배웠던 지각학습도 정말 흥미로운 주제라고 생각한다. 지각학습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에, 이를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 앞으로 소모임에서 이런 주제들도 함께 논의하고, 더 많은 것을 배워나가고 싶다.

## 제 19회 교수학습지원센터 성과 전시회

# 2024학년도 1학기 학습법 소모임 [교과스터디]

우수

우수팀 명

유진스  
(유기화학 전공)  
(유기화학 전공)

학습 내용

유기화학

학습 기간

24. 4. 29. ~ 6. 19.

팀원

김민지, 정채원, 이채연, 이혜린  
(약학과 23)

### 학습 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4/29	16:00 ~ 18:00	과학관 105호	2장의 단원 중 2-5 공명 구조에 대한 규칙, 2-6 공명 구조 그리기 단원을 학습하였다.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차례대로 학습하였다. 원자들의 위치나 전체적인 구조는 변하지 않고 전자나 비공유 전자의 배치만 다르다는 점과 원자들의 전기성도, 형식전하 등을 비교하며 전자가 이동하고자 하는 곳이 어디일지를 파악하는 것이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 학습하였다. 화합물의 다양한 공명 구조를 그리는 연습도 진행하였다. 교재의 예제와 연습문제를 통해 정확히 이해했는지 확인하였다. (생략)
5/8	16:00 ~ 18:00	과학관 105호	제4장 유기화합물: 사이클로알케인과 입체화학에 대해 학습하였다. 사이클로알케인(cycloalkane)은 포화한 고리형 탄화수소를 말하고 탄소가 3개인 cyclopropane, 탄소가 4개인 cyclobutane, 탄소가 5개인 cyclopentane, 탄소가 6개인 cyclohexane 등 다양한 사이클로알케인이 존재한다. 사이클로알케인은 열린-시슬 alkane의 명명과 동일한 규칙으로 명명되며, 이때 고리의 탄소 원자 수보다 가장 큰 치환기 사슬의 탄소 원자 수가 더 많을 경우, 사이클로알킬기가 치환된 알케인으로 명명한다는 것을 학습하였다. (생략)
5/21	12:00 ~ 14:00	과학관 105호	제6장 An Overview of Organic Reaction을 학습하였다. 우선 수업 시간에 해당 단원 강의를 들은 뒤 이를 정리하여 요약하고 모르는 부분을 질문한 뒤, 마지막에 문제 풀이로 개념의 이해도를 점검하였다. (생략)
6/19	19:00 ~ 21:00	과학관 105호	제7장 Alkenes: Structure & Reactivity를 학습하였다. 1) Chap. 7-3: Alkene이라는 이중결합을 명명할 때 첫 번째 단계인 '모체 탄화수소'를 찾아내는 것이 어렵다. 이걸 어떻게 더 쉽게 할 수 있을까? ① 유기화학 인터넷 강의 속 모체 탄화수소 찾기 >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릴 때 교과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유기화학 인강과 교과서를 모두 활용해 공부해 보았다. (생략)

### 활동 소감

#### ▶ 종합 의견

유기화학이라는 과목을 처음 배우게 되면서 이 교과목을 신경 써서 공부하면 앞으로의 여러 과목의 학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 소모임을 진행하게 되었다. 작년부터 소모임을 진행해 왔던 조원들로 진행되어 구조적으로는 수월하게 진행 할 수 있었다.

함께 배운 유기화학 교과목의 수업 내용을 공부하면서 많은 실력 성장이 있었다. 잘 안 풀리거나 이해가 쉽지 않은 부분이 가끔 있었지만 함께 풀면서 서로 설명해 주기도 하고 해당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교수님께 질문드리거나 관련된 내용을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자료들을 검색해 의문을 해결하였다.

효과적인 소모임이어서 앞으로도 함께 공부하면 좋은 과목이 있으면 함께 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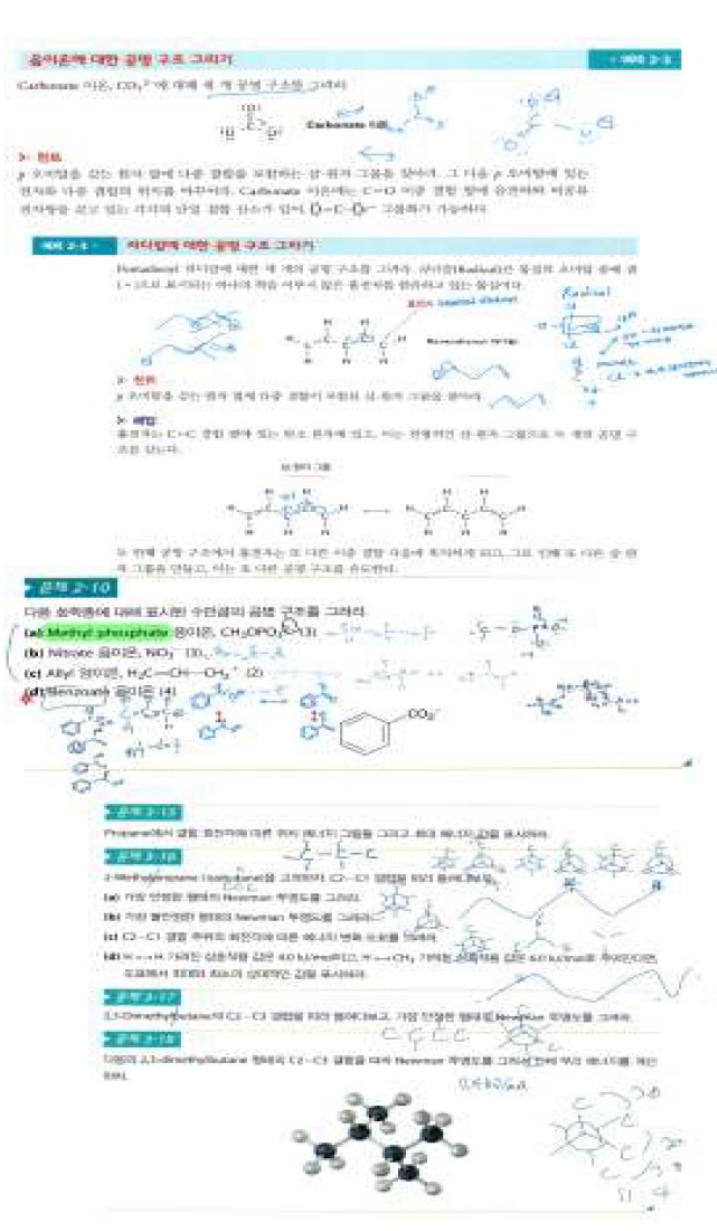
▶ 김민지 : 유진스를 통해 유기화학을 같이 공부하다 보니 확실히 유기화학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사실 초반에는 그렇게 큰 도움을 느끼진 못했지만, 뒤로 가면서 특히 chiral, chiral과 거울상이성질체 등 여러 가지 처음 접하는 개념이 나오면서부터는 '아, 정말로 소모임하기 잘했다.'라고 느꼈던 것 같다. 다 같이 머리를 모으니, 네 명임에도 꽤 다양한 견해를 갖고 있다고 느꼈고, 유연한 사고방식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1학기에 이어 2학기 때에도 유기화학 과목이 아니더라도 다른 과목에 대하여 교과스터디를 진행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 이채연 : 아주 어렵다고 들어온 유기였는데 막상 수업을 들어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려웠다. 그래서 수업 중 이해하지 못했던 걸 유진스 활동을 통해 제대로 이해했던 부분이 많았다. 만약 유진스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유기라는 과목을 놓아버렸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든다.

▶ 정채원 : 2학년이 되어 유기화학을 처음 배우면서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화학과는 결이 달라 생소한 느낌을 받기도 했고 어려움을 많이 느꼈다. 이처럼 유기화학에 어려움을 느낀 나에게 조원들과 수업 후에 하는 소모임을 통해 서로 질문을 교환하며 함께 답도 찾고 탐구를 해보는 시간은 유기화학이 그리 어렵지만은 않은 과목이란 것을 일깨워줬고 흥미까지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다음번에도 교과스터디가 생기면 스터디를 통해 어려운 과목을 사람들과 함께 공부해 보고 싶다.

▶ 이혜린 : 유기화학을 처음 배우는 단계에서 이 과목을 잘 이해해야 앞으로의 여러 과목의 학습에 차질이 없을 것 같아 신경 쓰였는데, 뜻이 맞는 동기들과 함께 확실하게 유기화학을 학습할 수 있어서 의미있었다. 특히 알켄 관련 내용에 들어가면서부터 난이도가 많이 상승한 것이 느껴져 함께 학습하는 것의 효과가 더욱 크게 체감되었다. 유기화학은 한번 학습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반복 학습을 하며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까먹은 내용을 다시 되새기는 것이 중요한 과목이라고 느껴져 이에 대한 보완을 철저히 할 수 있었다.

### 활동 사진



## 제 19회 교수학습지원센터 성과 전시회

# 2024학년도 1학기 학습법 소모임 [리딩리더스]

우수

우수팀 명

책을 먹자

학습 내용

독서 토론 및 감상 공유

학습 기간

24. 5. 10. ~ 5. 31.

팀원

서하민, 전채민, 권채연, 오채현  
심규범, 이해원(약학과 23)

### 학습 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5/10	16:00 ~ 18:00	과학관 602호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를 읽고 우리도 주인공들처럼 '고도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지, 그렇다면 자신에게 '고도'란 무엇인지 생각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5/17	16:00 ~ 18:00	과학관 602호	러시아 혁명과 스탈린의 배신을 우화로 펴낸 조지오웰의 '동물농장'을 읽고 "사회의 생산물을 모두에게 평등하게 분배하면 혁명의 이상처럼 다 함께 잘 사는 사회가 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각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어떤 모습이고 그 사회는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5/24	16:00 ~ 18:00	과학관 602호	다자이 오사무의 소설 "인간 실격"을 읽고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파악하기 위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토론을 진행하였다. 주인공 요조가 끝없는 질망과 고독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했을지, 인간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5/31	16:00 ~ 18:00	과학관 602호	주인공 싱클레어가 정체성, 도덕, 영적인 면을 탐험하는 여정을 따라가는 소설인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읽고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님의 세계를 파괴해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프락사스이다.'라는 문장에서 조원 각자가 생각하는 알이 무엇일지, 어떻게 하면 그것을 깨 수 있을지 대해 토론해 보았다.

### 활동 사진



### 회차별 감상평

1차	조원들이 공통으로 나타내는 감상평은 책 내용이 난해하고 미스터리 하다는 것이다.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책의 줄거리는 나무 한 그루만 있는 황량한 길에서 고도라는 인물을 기다리는 두 주인공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을 중심으로 작은 사건들이 지나가는 형식의 이야기이다. 일반적인 책의 전개 방식이 아닌 희곡의 대본으로 큰 사건 없이 잔잔하게 흘러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 수월하게 읽을 수 있었지만, 조원들과 감상평을 나누어보니 그 내용에 대한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한다. 그럼에도 어려운 내용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여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타인이 가진 새로운 관점을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경험을 얻을 수 있었다.
2차	'동물농장'은 권력과 불평등, 혁명과 배신'이라는 사회문제에 관한 무거운 주제와 내용을 우화라는 틀에 맞추어 가볍게 읽을 수 있도록 만든 책이었다. 이것에 관해 토론(위의 질문)하면서 "그런 이상적인 사회는 이상일뿐 현실에 존재할 수 없다" 혹은 "분배의 평등이라는 극악의 전제를 성립할 수 있다면, 또 유지할 수 있다면 이상적인 사회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등의 서로 비슷하면서 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았고 덕분에 다양한 의견을 알게 되었다. 책을 읽으며 간략하게 느낀점은 인간도 동물이기에 어떤 동물이든지 지능이 발달한다면 언젠가는 인간과 똑같이 행동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돼지가 인간을 대신하여 동물들을 착취한 것처럼.
3차	'인간 실격'은 다자이 오사무 본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수필에 가까운 작품이다. 책에서 요조는 절망과 고독을 주는 외부요인에 저항하지 못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세상은 요조 같은 '별종'에게 상냥하지 않으며, 사회에 대한 적응을 강요하는 편이기에 적응하지 못한 요조는 도태되어 버린 것이다. 좋지 않은 상황이 겹치고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 파국으로 치닫게 된 요조의 인생이 참으로 불쌍하기도 하지만, 자기 아내가 겹겹이 하는 상황에서 구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좌절하여 점점 마지막에 빠지는 요조를 감싸줄 만큼 세상은 다정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4차	데미안은 싱클레어라는 한 인간의 성장을 그린 소설이다. 부모라는 알을 깨고 세상으로 나와 다양한 경험들(사회에서 보기에 좋지만은 않은 일과 그것에서 스스로 빠져나오는 것을)을 쌓아가며 성장하며 이야기는 전개된다.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사회가 정해둔 통념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며, 이는 과거부터 항상 바뀌어왔고, 또한 계속해서 바뀔 것이기에 본인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생각한다. 실제로 토론을 통해 조원들이 생각하는 '알'에 대한 의견으로는 다른 사람의 시선 혹은 편견 등등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깨닫고 정해둔 기준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 활동 소감

▶ 오채현 : 개강했을 때는 시간을 내서 책을 읽기가 쉽지 않았는데 소모임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강제성을 가지고 책을 읽을 수 있었다. 또한 내 생각을 정리할 기회이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들어볼 수 있어 더 재미있었던 것 같다.

▶ 전채민 : 책을 잘 읽지 않는데, 이번 기회로 책을 읽을 기회가 되어서 좋았다. 그리고 읽어도 줄거리만 알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소모임을 통해서 줄거리보다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듣는 것도 꽤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 심규범 : 책을 읽을 때 내가 좋아하는 장르의 책들만 읽었었는데 이번 소모임을 통해서 다양한 장르의 책을 읽어 볼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책을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다양한 해석을 들을 수 있어서 시각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이해원 : 책을 읽은 것을 싫어하는데, 소모임을 통해서 약간의 강제성을 두니 나에게 책을 읽을 기회를 부여한 것 같아서 소모임에 참여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여름 방학 때 책 3권 읽는 것을 목표로 꾸준히 독서를 해봐야겠다.

▶ 서하민 : 책을 읽는 것만을 넘어서 사람들과 질문을 선정하고 그에 대한 생각에 대해 나누는 것이 새로웠고 견문을 넓히는 기회가 되었다. 앞으로도 꾸준한 독서를 통해 마음의 양식을 쌓아가야겠다고 느꼈다.

## 제 19회 교수학습지원센터 성과 전시회

# 2024학년도 1학기 학습법 소모임 [리딩리더스]

우수

우수팀 명

책략

학습 내용

독서 토론 및 감상 공유

학습 기간

24. 4. 29. ~ 5. 27.

팀원

김민지, 정예원, 이채연, 이혜린  
(약학과 23)

### 학습 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4/29	19:30 ~ 21:40	과학관 105호	(생략) 6가지 발제를 하고 소모임 시간에 한 명씩 돌아가며 자신이 생각하는 비를 말했다. 누군가의 말에 궁금증이 생기거나 추가 질문이 생기면 자유롭게 묻고 답하며 소모임을 진행하였다. 이 6개의 발제에 관해 토론하기 전에 각자 책을 읽으며 들었던 소감 인상 깊었던 부분과 그 이유에 대해서도 나누었다. 특히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윤리적인 물리과 허무주의에 대한 해답을 찾던 작가인 르루 밀러의 희망이라는 해결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5/20	18:00 ~ 20:00	과학관 105호	(생략) 6개의 발제를 하고 자기 생각을 말하고 묻는 시간을 가졌다. 책의 내용이 인물들 간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진행된 만큼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한 발제가 많았고, 연인 간의 사랑, 친구의 우정,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다. 또 책의 등장인물들의 말과 행동, 독백에 대해 자신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자신이었으면 어떻게 행동했을지를 토론하였다.
5/27	18:30 ~ 21:30	과학관 105호	(생략) 이 5가지 발제로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을 서로 나누었다. 책의 내용이 인물들 간의 사랑과 삶을 대하는 자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자연스럽게 발제도 그 방향성을 담아 이루어졌다.

### 활동 사진



#### 발제 1. 책 p.140-141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괜찮을까요?" 내가 월슨에게 물었다.  
"해로울 게 뭔가요? 두려움을 잠재워주고, 미래에 적응을 방해하는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 문제 될 게 없다고 봐요."  
"작은 거짓말이 큰 효과를 낸다고요?"  
"물론이죠!"  
이 대화에서 월슨의 의견에 동의하는가? 스스로에게 작은 거짓말을 하여 현실을 직시하는 않지만 두려움을 잠재워주는 것과 같은 유익이 있는 것과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아 현실을 직시하지만 그로 인하여 삶이 피로운 것 중에서 어떤 것을 택하겠는가?

#### 발제2. 책 p.263

내가 물고기를 포기했을 때 나는, 마침내, 내가 즐겼던 것을 얻었다. 하나의 주문과 하나의 속임수, 바로 희망에 대한 처방이다. 나는 좋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약속을 얻었다. (중략) 파괴와 상실과 마찬가지로 좋은 것들 역시 혼돈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중략) 그 좋은 것들, 그 선물들, 내가 눈을 가늘게 뜨고 황량함을 노려보게 해주고, 그것을 더 명료히 보게 해준 요령을 절대 놓치지 않을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다는 사실을, 매 순간, 인정하는 것이다.  
작가가 말하는 '희망에 대한 처방'을 자신만의 언어로 바꾸면 어떻게 정리해서 표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작가가 말하는 '희망에 대한 처방'에 동의하는가?

### 회차별 감상평

1차	각자 뽑은 벌제로 토론한 것 이외의 책에 대한 감상과 토론 이후 들었던 생각을 알 수 있어 흥미로웠다. 한 권의 책, 같은 구절을 읽고도 서로 얼마나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지를 직접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었다. 전반적으로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가 실화에 기반한 내용이라는 사실에 놀란 조원이 많았고,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라는 인물이 왜 그렇게 변했는지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나누었다. (생략)
2차	삶에서 하는 의도가 선한 거짓말, 각자가 생각하는 '어른'은 어떤 사람인지, 간섭과 애정의 관계 등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어른이 무엇인지의 정의에 대해서 모두 조금씩은 다르게 생각하였다. 서로 어른의 정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나누었고, 과연 '어른'같은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관점을 이야기하며 상대방의 생각에 놀라고 깨닫는 바가 있기도 했다. 가령 당연하게 어른스러워져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과연 어른스러워지는 것이 정답인가에 대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말을 한 조원도 있었다. 첫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며 마찬가지로 무엇이 '첫사랑'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나누고 첫사랑의 경험에 대해서도 나누었다. (생략)
3차	공통적인 책에 대한 감상평은 상당히 난해하다는 것이다. 책의 시작부터 끝까지 4명의 등장인물의 다양한 관계와 사랑에 대해 나오는데, 각 관계가 조원들이 생각했을 때 사랑인지, 어떤 부분을 보고 그렇다고 생각했는지를 나누었다. 각자 같은 책을 읽었지만 집중해서 본 장면들이 많이 다른 것을 확인하고, 왜 그 장면을 집중해서 감상했는지 들으며 책을 다각도로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책에서 나오는 키치, 육체의 관계와 정신적인 사랑, 육체의 추함과 플라톤의 사랑과 같은 다양한 철학적인 논의를 하였다. 사람들의 관계와 그 등장인물들이 추구하는 삶 등을 보여주며 이렇게 다양한 생각거리를 제공한 이 책이 흥미롭다는 감상이 지배적이었다. (생략)

### 활동 소감

▶ 김민지 : 원래라면 학기 중엔 책을 조금은 읽어보려고 시도는 해보았겠지만 결국 다 읽지 못한 채로 종강하였다 텐데, 책 모임을 통해 3권의 책을 완독할 수 있어서 좋았다. 사실 마지막 도서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으로 500p의 두꺼운 소설이었기 때문에 4번의 활동을 채우지 못하였다 점이 아쉬웠다. 그럼에도 각각의 소모임원이 도서를 추천하여 무작위 순서를 통해 도서의 순서를 정하는데, 그러면서 내가 평소에는 읽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도서들을 읽을 수 있어서, 다양한 느낌의 책을 읽을 수 있어서 좋았다. 특히 소모임 활동을 하면서 도서의 내용과 조금이라도 관련된 평소 생각하던 고민이 있다면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었는데, 이렇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때로는 가볍고 때로는 무겁게,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던 것 같다. 2학기 때에도 책 모임 활동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

▶ 이채연 : 책을 싫어하는 것이 아님에도, 학기 중에는 학교생활에 치여 독서를 꾸준히 하는 것이 어려웠다. 그래서 약간의 강제성을 만들고자 소모임을 조직해 활동했고, 덕분에 3권의 책을 읽을 수 있었다. 3개월 동안 3권이라는 독서량이 많은 것은 아니나, 아마 리딩리더스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이마저도 읽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더욱이 혼자 책을 읽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소모임원들과 책에 대한 생각을 나누면서, 미처 혼자는 생각해 보지 못한 책의 부분을 깨닫기도 하고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도 있었다. 또한 책의 줄거리를 넘어 운명, 우연, 사랑과 같이 각자의 가치관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즐거웠다. 이를 통해 동기들과 더욱 돈독해졌으며, 나의 고민 또한 새롭게 돌아볼 수 있었다. 한 학기 동안 했던 활동 중 정말 가치 있었다고 생각되는 활동이다.

▶ 이혜린 : 다양한 사람들이 추천하는 책을 읽어보고 그에 대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활동은 매우 재미있는 것 같다. 다른 사람이 추천한 것이 아니면 읽지 않았을 것 같은 책들을 읽으며 예상치 못한 재미를 느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거리를 얻을 수 있어 좋았다. 특히 여러 종류의 소설을 읽어보며 작가와 작가의 국가, 시대적인 상황 등이 달라지면서 변화하는 문체를 살펴보는 재미가 있었다.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히는 좋은 방법의 하나가 독서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여러 명의 뜻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하니 더욱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어 유익한 소모임 활동이었다.

▶ 정예원 : 나는 책을 좋아하긴 하지만 항상 비슷한 종류의 책들, 특히 소설만 즐겨 읽는 책 편식이 심했다. 혼자서는 고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었는데 이번 독서 모임 활동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의 책을 접하고 그 재미를 새롭게 깨달을 수 있었다. 그에 더해 할 일이 많은 학기 중에도 모임을 계기로 꾸준히 책을 읽을 수 있어 좋았다.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접하는 일도 즐거웠고, 여름으로 이번 독서 모임 활동을 통해 얻어가는 것이 많다. 좋은 경험을 하게 해준 동기들에게 감사하다.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도 꾸준히 독서 모임에 참여하고, 나중에 졸업하더라도 교외 독서 모임을 찾아다니며 이처럼 좋은 시간을 쌓아가고 싶다고 생각한다.

## 제 19회 교수학습지원센터 성과 전시회

# 2024학년도 1학기 학습법 소모임 [전공튜터링]

우수

우수팀 명

우린 엉덩이 탐정,  
생리학을 연구하지

학습 내용

생리학개론

학습 기간

24. 4. 18. ~ 6.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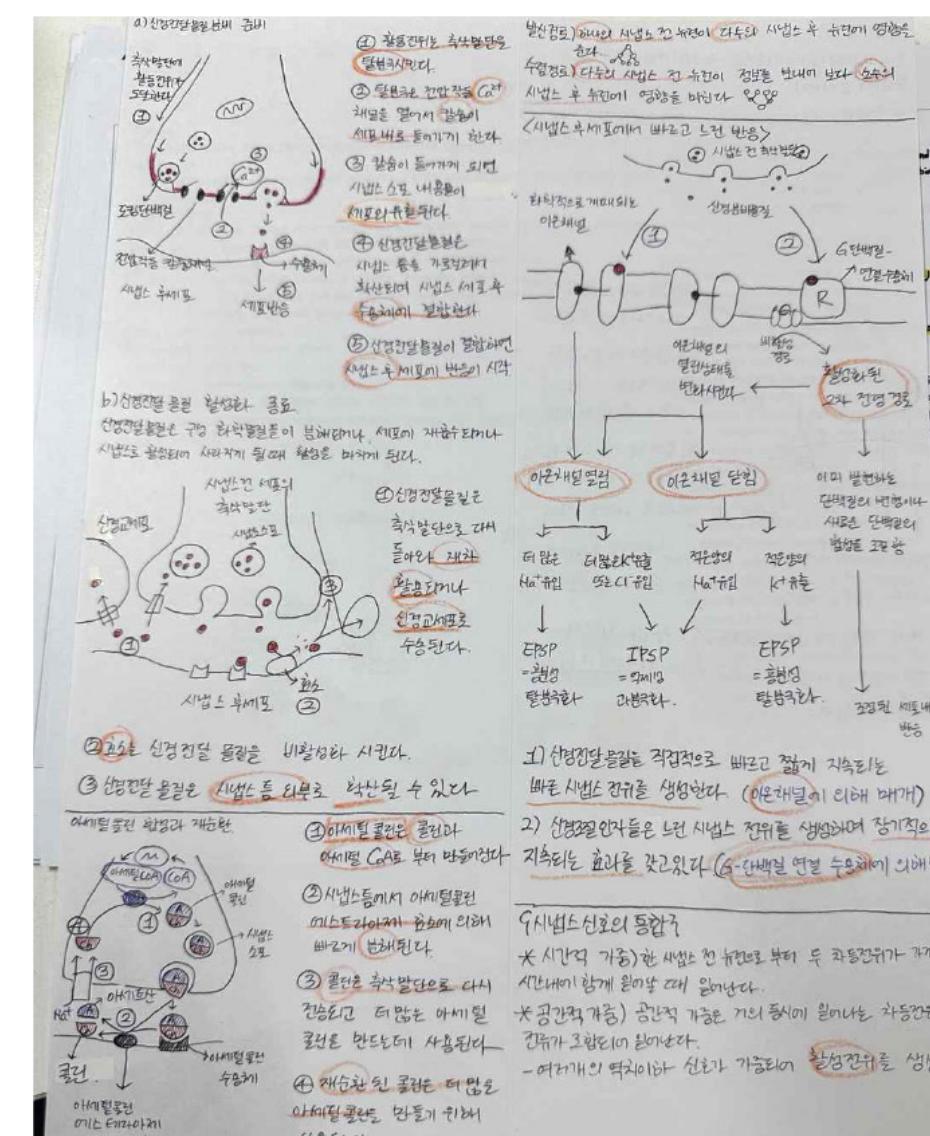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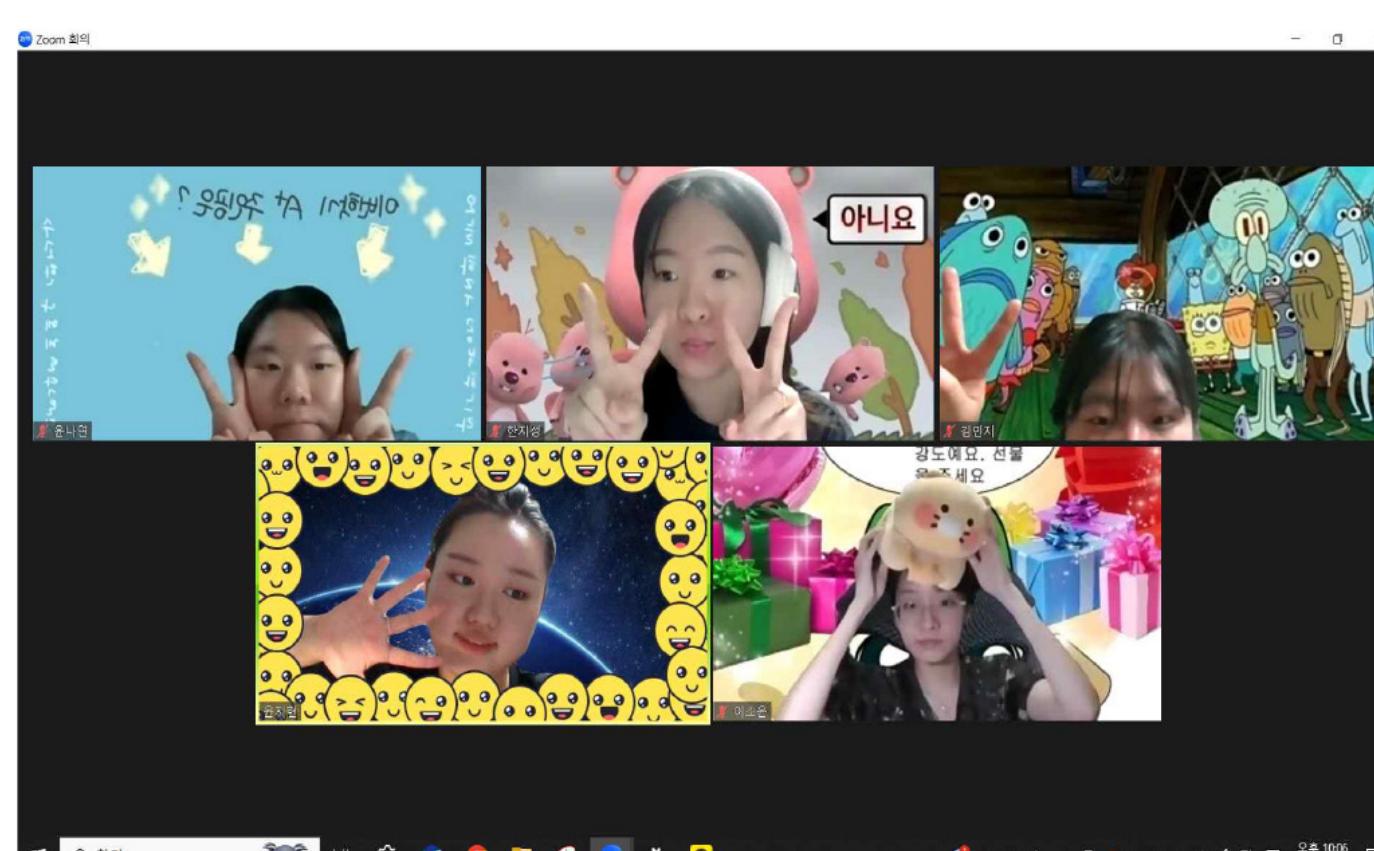
튜터/튜터

튜터 : 윤나연(의생명과학과 21)  
튜터 : 김민지, 한지성, 이소은, 윤지현  
(의생명과학과 21)

### 학습 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4/18	20:09 ~ 22:10	ZOOM	세포는 생물체의 기본 단위로, 다양한 구성 요소가 각각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상피는 신체와 기관의 표면을 덮어 보호, 흡수, 분비, 감각, 여과 등의 역할을 한다. 이를 기능은 신체의 건강과 생존에 필수적이다. 이번 학습을 통해 세포와 상피의 기본 개념과 중요성을 이해했다.
5/2	20:03 ~ 22:00	ZOOM	이 장에서는 펩타이드 호르몬과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구조와 작용 메커니즘에 중점을 두었다. 펩타이드 호르몬은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단백질 형태로, 세포막 수용체에 결합하여 second messenger 시스템을 활성화해 세포 내 반응을 조절한다. 반면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지질 유도 구조를 가지며 세포막을 통과해 핵 내에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여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생리적 변화를 유도한다.
6/6	20:04 ~ 22:05	ZOOM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의 구분과 각각의 기능에 관해 공부하였다. 감각 뉴런이 외부 및 내부 자극을 중추신경계로 전달하고, 원심성 뉴런이 신경 신호를 말초 신경계로 전달하여 효과기관을 자극한다. 또한, 자율 신경계의 교감 신경계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신체를 준비시키고, 부교감 신경계는 안정 상태를 유지하며 에너지를 절약한다.
6/13	20:06 ~ 22:06	ZOOM	근육의 수축과 이완 과정은 복잡한 단백질 상호작용과 에너지 전환에 의해 이루어진다. 먼저, 신경과 근육 사이의 신냅스에서 아세틸콜린이 방출되어 근육 세포를 자극하고, 이어서 신경 자극에 의해 칼슘 이온이 소포체에서 방출되어 액틴과 미오신의 상호 작용을 조절하며 근육 수축을 일으킨다.

### 활동 사진



### 활동 소감

#### ▶ 종합 의견

전공튜터링을 통해 생리학 개론을 함께 공부한 이번 경험은 매우 유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처음 생리학개론을 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복잡하고 방대한 내용에 막막함을 느꼈지만, 전공 튜터링을 통해 서로 도우며 공부한 덕분에 어려운 개념들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각자의 강점과 약점을 보완해 가며,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을 통해 학습의 깊이를 더할 수 있었다.

특히, 소모임의 장점 중 하나는 다양한 시각과 접근 방식을 접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개인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았던 부분도 다른 멤버들의 설명과 예시를 통해 쉽게 풀어나갈 수 있었고, 서로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 생리학의 개념을 더 확고히 할 수 있었다. 이런 협력적인 학습 환경은 개인 학습의 한계를 극복하게 해주었으며, 더 나아가 생리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더욱 높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정기적인 스터디 모임을 통해 지속적으로 학습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었다. 각자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함께 공부함으로써 책임감을 느끼고 꾸준히 학습할 수 있었고, 이는 성과로 이어졌다. 서로의 성장을 지켜보며 응원하고 격려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학습 공동체의 가치를 느낄 수 있었다.

이번 스터디그룹 활동을 통해 얻은 지식뿐만 아니라, 협력과 소통의 중요성도 크게 배울 수 있었다. 앞으로도 이런 스터디그룹을 통해 다양한 과목을 함께 공부하며,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을 도모하고 싶다.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생리학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이러한 협력적 학습 방식을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다.

▶ 윤나연 : 생리학 개론이 양이 많아, 공부하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과목이었는데, 튜터로써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여 튜티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뿌듯하였음. 또한 이 활동으로 더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예시를 찾아보며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음.

▶ 김민지 : 생리학 개론이 전공과목이고, 여러 전공과목을 많이 수강하고 있어 혼자 공부하기 두려웠는데, 동기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모르는 것도 물어보고 서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질문하면서 더 배울 수 있었습니다.

▶ 이소은 : 처음엔 생리학 개론이 너무 어려워 걱정했지만, 스터디그룹 덕분에 재미있게 배울 수 있었다. 다른 사람들과의 토론과 피드백이 큰 도움이 되었다. 이번 경험을 통해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 윤지현 : 생리학 개론을 통해 우리 몸의 작동 원리를 이해할 수 있어서 정말 흥미로웠음. 스터디그룹 덕분에 어려운 개념들도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음. 함께 공부한 시간이 정말 소중했고, 앞으로도 이런 모임을 지속하고 싶음.

▶ 한지성 : 스터디그룹을 통해 혼자 공부할 때보다 더 깊이 있는 학습이 가능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시각을 접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그룹 활동을 통해 더 다양한 지식을 쌓고 싶습니다.

## 제 19회 교수학습지원센터 성과 전시회

# 2024학년도 1학기 학습법 소모임 [전공튜터링]

우수

우수팀 명

풀옴비

학습 내용

생화학

학습 기간

24. 4. 19. ~ 5.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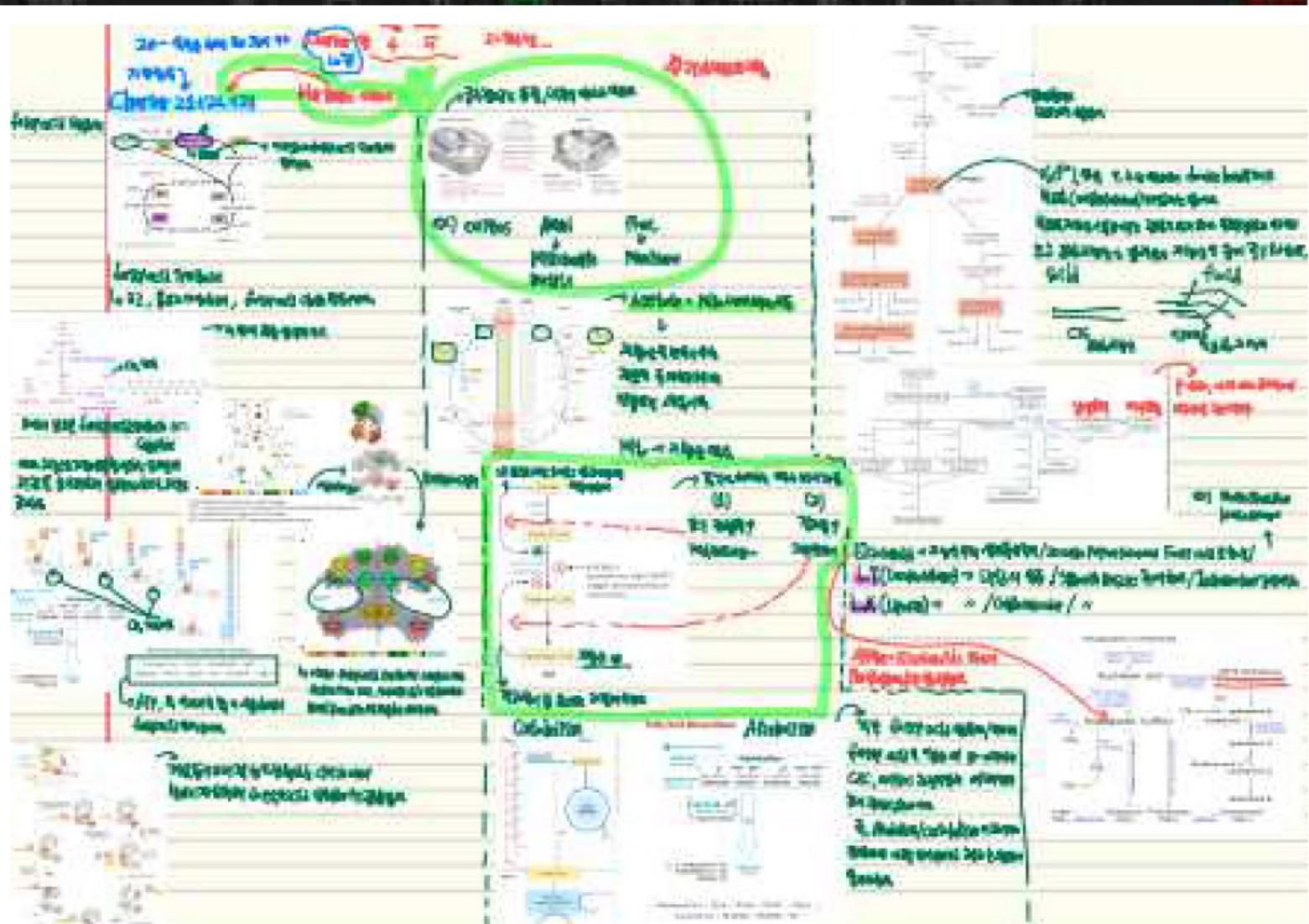
튜터/튜터

튜터 : 차호진(의생명과학과 22)  
튜터 : 임동원, 허유진(미래융합대학 23),  
장다운(미래융합대학 24)

### 학습 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4/19	22:02 ~ 23:59	ZOOM	생화학 아미노산 20개를 외우고 각각 시험을 보며 공부해 온 내용을 체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튜터의 설명으로 더욱 쉽게 외우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4/24	22:00 ~ 00:20	ZOOM	아미노산의 기능과 분류에 대해서 배우기 실험기법 알려주고 무엇을 분석하는 과정인지 알려주고 논문에 기재된 실험 기법을 통해서 실제 데이터값을 분류해 보는 시간을 가진다.
5/1	20:01 ~ 23:21	ZOOM	생화학 메카니즘 지방대사, 아미노산대사, 포도당(Glucose) 분해/합성 외워서 각각 효소와 기전이 어떻게 되는지 메커니즘을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5/8	19:00 ~ 21:20	ZOOM	이때까지 배운 생화학 메카니즘 전부를 외워서 시험을 보고 악품 처리를 했을 때 어떻게 몸 안에서 진행되는지를 구분하여 공부하였습니다.

### 활동 사진



### 활동 소감

#### ▶ 종합 의견

전공 교과목 튜터링은 학생들에게 깊이 있는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학습 스타일에 맞춘 개인 맞춤형 학습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합니다. 튜터링의 긍정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은 여러 측면에서 드러납니다. 개별 맞춤형 학습 제공의 측면에서는 튜터링은 학생 개개인의 학습 속도와 이해 수준에 맞춰 진행됩니다. 이는 학생들이 자신만의 학습 스타일을 발견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은 시각적인 자료를 통해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다른 학생은 반복적인 문제 풀이를 통해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맞춤형 접근은 학생들의 학습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또한, 심화 학습 기회 제공이라는 점을 볼 때 전공 교과목은 종종 복잡하고 심도 있는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강의 시간만으로는 충분한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튜터링은 학생들이 어려운 개념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실제로 적용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생화학의 복잡한 메커니즘을 자세히 설명하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선배님과의 즉각적인 피드백 제공이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학생들은 학습 도중 발생하는 의문점을 즉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더 이상 혼자서 고민하지 않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즉각적인 피드백은 학생들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며, 올바른 학습 방향을 제시합니다.

서로 문답을 하며 자신감을 키워나가는 과정 또한 튜터링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감을 얻습니다. 개인적인 지도를 통해 어려운 개념을 이해하고, 성공적인 학습 경험을 쌓음으로써, 학생들은 학업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학업 성취도 향상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학습 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따라 자기주도 학습 능력 향상이라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고 튜터링은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튜터의 도움을 받으며, 학생들은 학습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설정하며, 학습 전략을 개발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학생들이 독립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학생 개인이 동기부여를 하는 능력을 키워주게 됩니다. 튜터는 학생들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튜터는 긍정적인 격려와 지지로 학생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높이고, 더 나은 성과를 끌어냅니다.

#### 소감문

전공 교과목 튜터링을 통해 많은 학생이 학습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되어 매우 보람찼습니다. 학생들이 각자의 속도에 맞춰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깊이 있는 이해와 실질적인 학습 성과를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튜터링을 통해 학생들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육의 힘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긍정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학생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임동원 : 전공 교과목 튜터링을 통해 많은 학생이 학습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되어 매우 보람찼습니다. 학생들이 각자의 속도에 맞춰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깊이 있는 이해와 실질적인 학습 성과를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튜터링을 통해 학생들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육의 힘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긍정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학생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차호진 : 생화학이란 과목은 배웠던 과목임에도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소모임에서 멘토를 담당하며 멘티들에게 생화학의 내용에 대해 알려주면서 이 과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멘티들이 질문하는 내용에 답을 해주기 위해 매시간 수업 전에 공부하면서 되새길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전에 어려워했던 파트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라는 커다란 주제의 일부를 설명하는 것임을 항목화해서 공부하니 더욱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또한 멘티들이 질문한 내용이 저에게도 어려웠기에 이를 해결했을 때 지식이 더 단단하게 굳었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허유진 : 2학년이 되면서 심화한 전공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생소하거나 어려운 내용을 같이 공부해서 좋았습니다. 서로 이야기하며 같이 공부함으로써 생화학 공부에 대한 이해도도 더 높아지고 시험공부에 도움이 많이 되어 유익했습니다.

▶ 장다운 : 소모임 활동을 통해 평소 헷갈렸던 개념을 조원들과 논의하면서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특히나 TCA cycle에 관해 공부하면서 cellular respiration을 하는 organism들에게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으며, glucose 분해 과정에 포함된다는 것을 배웠다.

## 제 19회 교수학습지원센터 성과 전시회

# 2024학년도 1학기 학습법 소모임 [전공튜터링]

우수

우수팀 명

의의아

학습 내용

약물치료학

학습 기간

24. 4. 17. ~ 5.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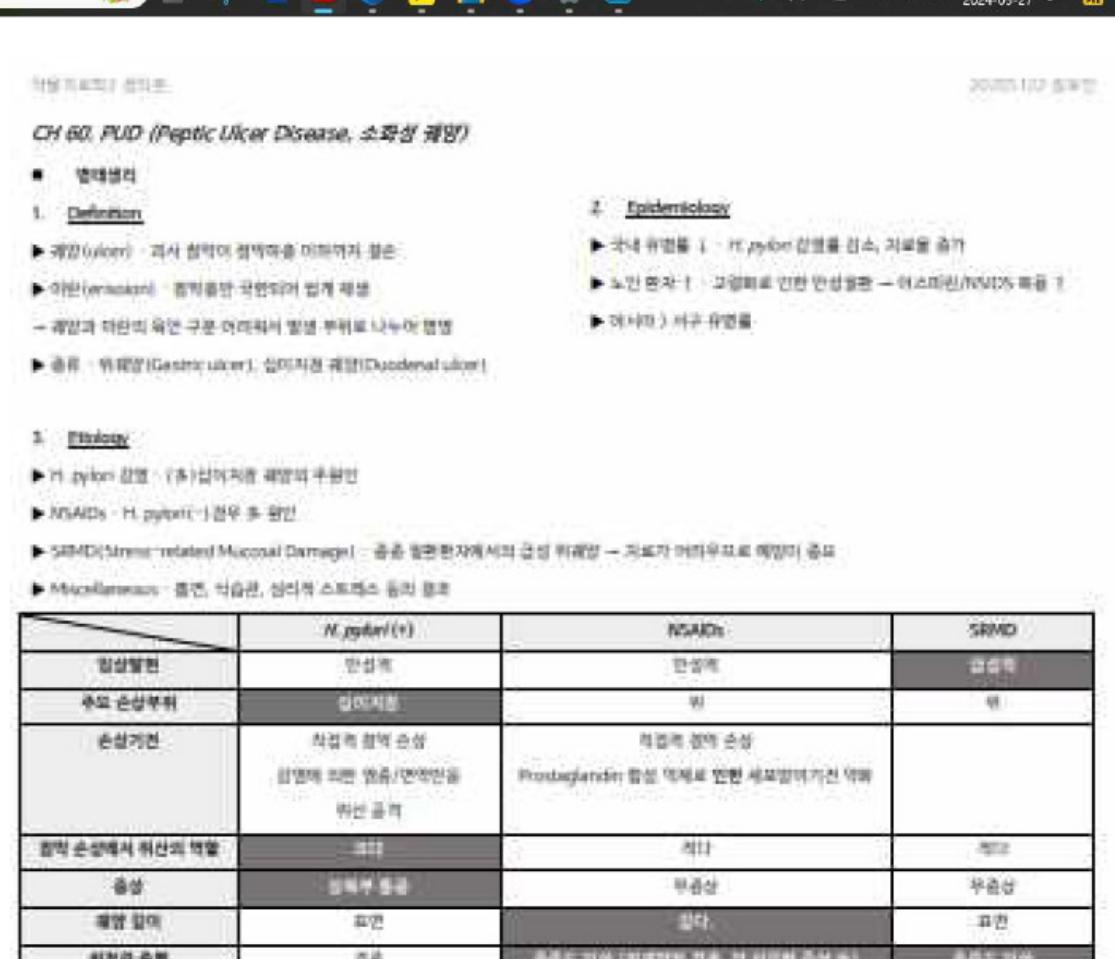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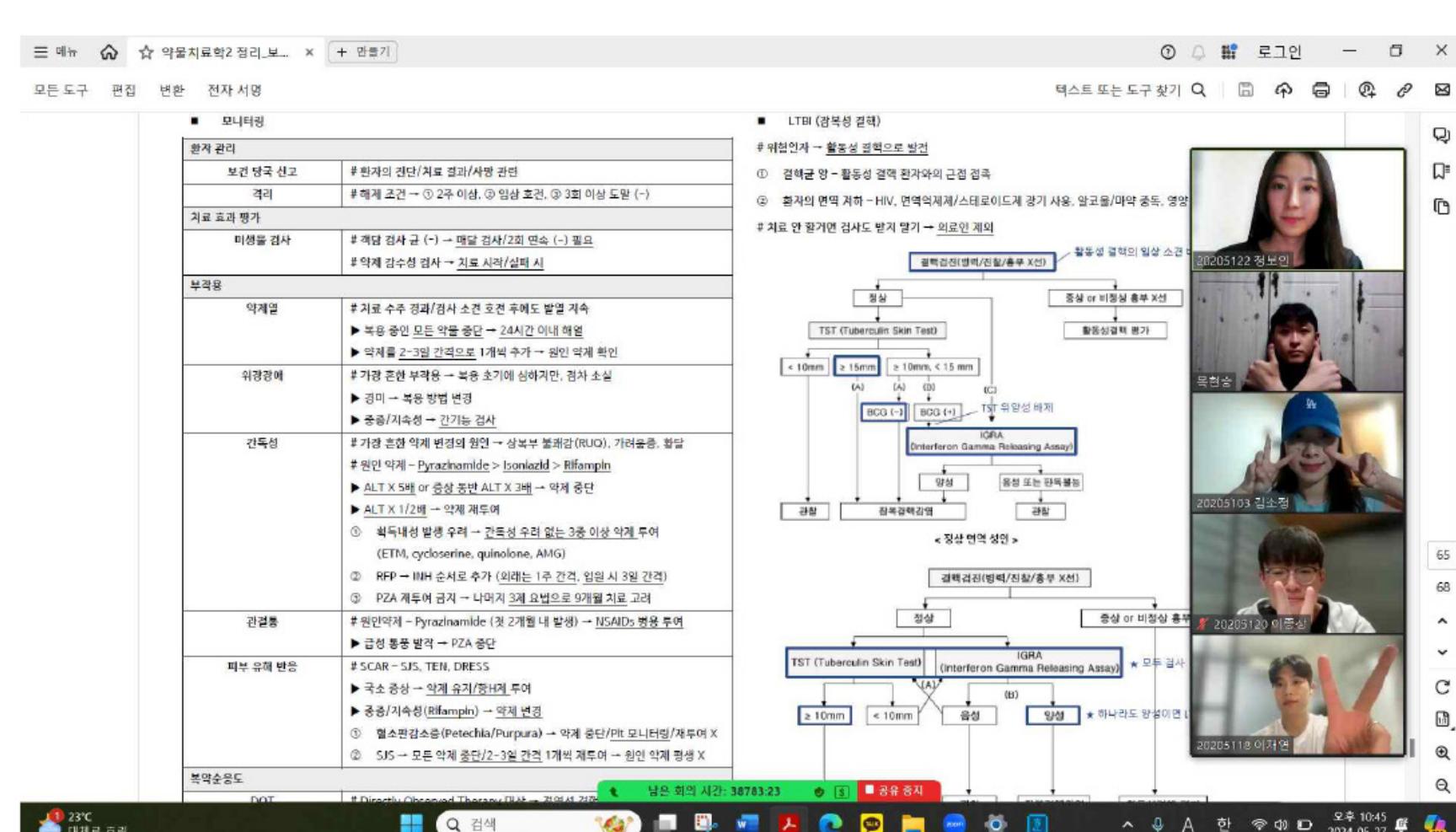
튜터/튜터

튜터 : 정보인(약학과 20)  
튜터 : 김소정, 목현승, 이재연, 이종상  
(약학과 20)

### 학습 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4/17	19:31 ~ 21:13	ZOOM	소화성 궤양의 병태생리학적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한 후, 암기 가 필요한 약물과 개념을 구술시험으로 체크함.
5/1	20:06 ~ 22:21	ZOOM	Fungal Infection 치료제인 항진균제를 분류하고, 적용 스펙트럼과 부작용, DDI, 주의사항 등을 우선 암기한 후, 각 진균증에 대해 사용 가능한 약물에 대해 학습, 암기함.
5/8	19:01 ~ 21:58	ZOOM	오스키 복약지도 시험 준비를 위해 미리 배포한 시험 약물 정리본을 토대로 암기 과정을 체크해 본 후, 돌아가면서 무작위로 약물을 선정하여 복약지도를 해보고 이에 대해 피드백함.
5/27	20:33 ~ 22:45	ZOOM	결핵의 특성과 진단에 관해 공부하고, 양한 약을 한 번에 복용해야 하는 결핵의 특성을 고려하여 치료 가이드라인을 우선 학습함. 이후 각 약물의 용법과 용량, 부작용 등에 대해 암기하고 잠복성 결핵환자에서 달라지는 치료법에 대해 공부함.

### 활동 사진



### 활동 소감

#### ▶ 종합 의견

가장 외울 사항이 많고, 의논이 필요한 약물치료학2를 함께 학습하며 올바른 치료 방향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특히, 튜터로서 가이드라인을 미리 정독하고 치료 방향을 제안하며 다시 한번 개념을 숙지할 수 있었으며, 튜티들과 공유하기 위해 다양한 암기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한번 더 복습할 수 있어 효율적이었다. 또한 튜터로서 단순히 약물을 암기하기보다는 가이드라인에 맞춰 각 환자에게 적합한 약을 고민할 수 있어 좋았다. 특히 방대한 약을 암기하게 되며 나태해질 수 있는 순간에도 튜터링을 통해 계속해서 암기 정도를 체크하고 오개념을 파악할 수 있어 좋았다.

예비 실무실습 과목에서 진행한 오스키 시험은 특히나 서로 교류하며 피드백을 가지는 시간이 중요했는데, 튜터가 제공해 준 암기 자료를 토대로 단순 암기를 우선 체크한 후 복약지도 태도와 모습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어 시험에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

▶ 정보인 : 다양한 자료를 만들며,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계속해서 복습할 수 있었으며 튜티들의 암기 정도를 체크하면서 자극을 받아 더욱 정진하여 학습해 나갈 수 있었다.

▶ 김소정 : 다른 튜티들이 성실하게 암기하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시험 기간이 아니더라도 꾸준히 노력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 목현승 : 튜터가 제공해 준 자료 덕분에 시험 기간을 더욱 수월하게 보낼 수 있었고, 단순히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뿐만 아니라 국가고시 시험에도 도움이 될 자료를 제공받은 것 같아 감사하다.

▶ 이재연 : 함께 공부하며 내가 모르던 개념을 알 수 있던 시간이었고, 암기 상황을 체크하며 스스로 노력할 것을 다짐할 수 있었다.

▶ 이종상 : 오스키처럼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었을 공부를 함께할 수 있어 뜻깊었으며, 튜터가 먼저 노력하고 예시 복약지도를 보여주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준 덕분에 방향성을 잡을 수 있어 고마웠다.

# 제19회 고수학습지원센터 성과 전시회

# 2024학년도 3학기 학술법 포함 전공특강



## 우수팀 명

## 남만 의제 홍사부

## 학습 내용

## 의약품 제조화학

## 학습 기간

24. 4. 29. ~ 6.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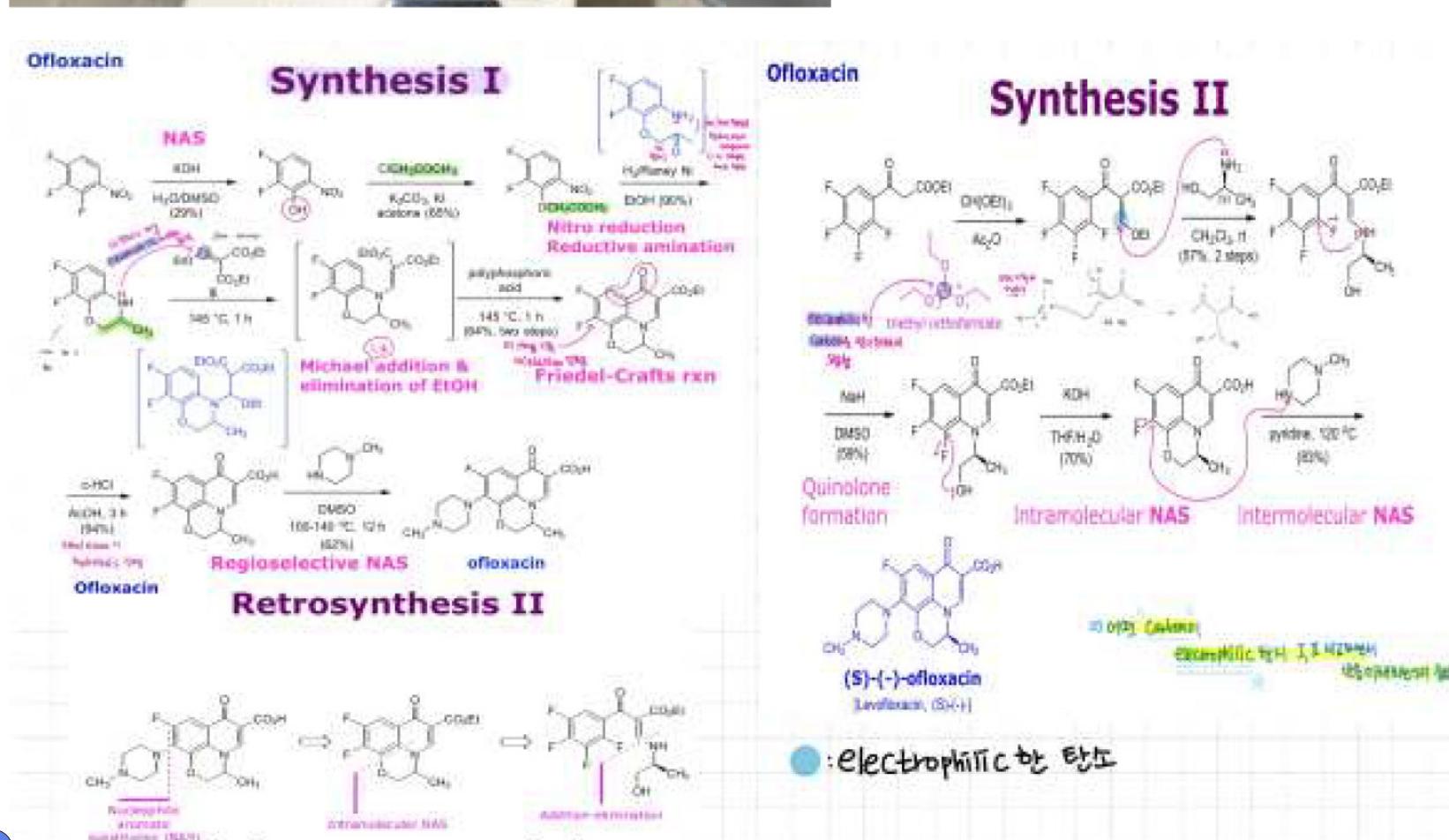
## 튜터/튜티

튜터 : 박가영(약학과 21)  
튜티 : 나수빈, 오승범, 김우림, 박태현,  
김미행(약학과 21)

할습 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4/29	12:00 ~ 14:00	과학관 103호	9주차 수업에서 다룬 당뇨병치료제(Anti diabetic agents & hypoglycemic agents) 4가지와 항산성 균 약물들(Acid-Fast Bacteria) 4가지의 중요 합성법을 완벽히 숙지하고 각 해당 약물 별로 주요하게 다룬 반응의 전자 흐름을 꼼꼼하게 분석해 보며 확실히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dapson의 합성법 중 oxidative cleavage 반응을 확실히 익힐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5/13	12:00 ~ 14:00	과학관 103호	11주차 수업에서 다룬 항 원생동물 약물(Anti-Protozoal Agents) 3가지와 항진균제(Anti-fungal agents) 약물 2가지의 중요 합성법을 완벽히 숙지하고 각 해당 약물 별로 주요하게 다룬 반응의 전자 흐름을 꼼꼼하게 분석해 보며 확실히 이해하였습니다. 특히 Fluconazole의 Corey-Chaykovsky reaction에 대해 자세히 다루었던 시간이었습니다.
5/24	19:21 ~ 21:29	과학관 103호	11주차 수업에서 다루었던 나머지 항생제(Antibiotics)를 계열별로 구분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총 3가지 계열의 4가지 항생제 약물들의 중요 합성법을 완벽히 숙지했고 각 해당 약물 별로 주요하게 다룬 반응의 전자 흐름을 꼼꼼하게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Quinolone계 항생제 ciprofloxacin의 Sandmeyer reaction에 대해 확실히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6/10	12:00 ~ 14:00	과학관 103호	14주차 수업에서 다루었던 항암약물(Anti-Cancer drugs) 4가지와 갑상선 호르몬 조절약물인 Levotyrosine, 비만치료제인 orlistat의 합성법을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각 해당 약물 별로 주요하게 다룬 반응의 전자 흐름도 꼼꼼히 분석해 보았고 특히 Gemcitabine의 Reformatsky 반응에 대해 자세히 다루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활동 사전



### ▶ 종합 의견

의약품 제조화학 수업은 3학년 2학기와 마찬가지로 반응 위주의 수업이었고, 수업 시간에 다루는 모든 반응의 전자 흐름 메커니즘을 저희의 힘으로 풀어낼 수 있어야 했습니다. 3학년 2학기 의약품 제조화학 1에서는 잘 모르는 반응은 이름만 암기하였고 각 전자가 어떤 방식으로 흐름을 가지는지 자세히 알지 못하고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이번 전공튜터링을 계기로 각 반응 유형별로 어떻게 전자가 흘러가고,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넘어가니 모든 수업 반응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튜터를 포함하여 모든 튜티들도 적극적으로 반응을 공부해 오고 서로의 의견을 나눔으로써 혼자 이해할 때보다 훨씬 기억에 오래 남고 미처 몰랐던 것들도 자세히 되짚고 넘어갈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 박가영 : 튜터로써 책임감을 많이 느끼면서 참여하였는데, 튜티들이 잘 따라와 주고 능동적으로 활동에 참여해 주어서 끝까지 잘 끌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시험 성적이 나오진 않았지만, 튜티들 모두 개인적으로 실력이 향상된 것을 느꼈다고 해서 뿌듯하였습니다.

▶ 김미행 : 의약품 제조화학의 과목 특성상 유기화학 반응에 대한 기본기가 잘 잡혀있어야 하는데 이번 스터디에 참여하면서 부족했던 기본기를 메꿀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박태현** : 어려운 반응이 나오면 혼자서 이해하느라 긴 시간이 걸렸었는데, 전 공튜터링을 진행하면서 중간중간 동기들과 토론하며 같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공부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었습니다.

▶ 나수빈 : 이번 학기에 유독 의약품 제조화학 과목의 공부량이 많았는데 혼자서 했다면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넘어갔을 양도 다 같이 분배하고 모르는 내용을 튜터한테 질문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니 해당 과목을 무사히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김우림** : 수업 시간에 전에 배운 내용이라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간 부분이 많았는데, 튜터링 시간을 통해서 전에 학습했던 반응들도 다시 짚고 넘어가서 더 이해도가 높은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 **오승범** : 유기화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개인적인 공부 방법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튜터뿐만 아니라 다른 튜티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좋은 방법이 있으면 공유하는 방식으로 협동해서 스터디를 진행할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 제 19회 교수학습지원센터 성과 전시회

# 2024학년도 1학기 학습법 소모임 [영글클럽]

우수

우수팀 명

차대로운 공연생활

학습 내용

뮤지컬 감상 및 공유

학습 기간

24. 4. 28. ~ 5. 30.

팀 원

정예원(약학과 23), 오유선,  
유수빈(미래융합대학 23)

### 학습 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4/28	14:00 ~ 18:00	충무아트센터 중극장 블랙	뮤지컬 '버지니아울프'를 보고 난 후 함께 감상평을 공유하였다.
5/10	20:00 ~ 23:00	예스24 스테이지 1관	뮤지컬 '광엄 소나타'를 보고 난 후 함께 감상평을 공유하였다.
5/11	14:00 ~ 18:00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뮤지컬 '디어에 반핸슨'을 보고 난 후 함께 감상평을 공유하였다.
5/12	14:00 ~ 15:40	링크아트센터 벽스홀	연극 '아트'를 보고 난 후 함께 감상평을 공유하였다.
5/12	18:30 ~ 20:55	유니플렉스 1관	뮤지컬 '웨스턴 스토리'를 보고 난 후 함께 감상평을 공유하였다.
5/30	20:00 ~ 22:00	예스24 스테이지 1관	뮤지컬 '광엄 소나타'를 보고 난 후 (재관람) 함께 감상평을 공유하였다.

### 회차별 감상평

1차	뮤지컬은 이전에도 자주 보았지만 이렇게 본격적으로 각자 주제를 정하고 의견을 나눈 것은 처음이라 재미있었다.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공연을 복습해 보니 나는 전혀 주의 깊게 살펴보지 못했던 부분까지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볼 수 있었다. 이번 뮤지컬은 인물들 간 갈등이 심화하거나 도덕적으로 화색지대에 있는 소재가 없어 이야기 주제들이 모두 공연 그 자체에 대한 것으로 재시되었다. 다음 뮤지컬을 감상한 후에는 등장인물들의 행동과 그와 관련지어 도덕적 옳고 그름에 대해 토론해 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또, 주제 자체도 뮤지컬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좀 더 다른 분야들과 연관 지어서 제시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
2차	우리 팀원은 이 극이 끝나고 커튼콜 전 박수하는 것이 이 뮤지컬에 찬사를 보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살인에 찬사를 보내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배우들의 열연과 피아노 연주가 너무 대단하여 커튼콜에는 당연하게 찬사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피아노 연주하며 연기하고 노래 부르는 일을 동시에 하는 배우들이 너무 대단하였고 주인공이 미치는 모습을 배우의 열연과 넘버, 오케스트라, 조명으로 극대화하는 이 무대가 너무 인상적이었다. (생략)
3차	이번 뮤지컬을 보고 감상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같은 공연을 접한 후에도 정말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고, 그에 옳고 그름은 없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강렬하게) 깨달을 수 있었다. 또 절대다수의 감상을 따라갈 필요는 없고, 내가 공연을 보고 깨닫거나 느낀 것의 이유와 결과를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생략)
4차	예술 작품을 둘러싼 갈등을 통해 인간관계의 복잡성과 아름다움을 탐색한다고 느꼈으며, 이 연극은 자신의 가치관과 우정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만든다는 점에서 교훈을 주는 것 같다. 또한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려준다고 생각한다. 연극 '아트'는 예술에 대한 개인적 가치와 친구 간의 관계라는 복합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기에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폭넓게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생략)
5차	웨스턴 스토리 뮤지컬 관람을 통해 미국 서부 개척 시대의 모험과 활극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었다. 또한 다른 극들에 비해 유쾌한 공연이다 보니 다양한 캐릭터들의 상호작용과 탁월한 연기력이 돋보였으며, 화려한 무대 연출과 음악이 몰입감을 높였다는 의견이 많았다. 같은 공연을 봤는데도 각자가 다르게 해석한 캐릭터들과 연출 조명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좋았다. 단순히 공연 내용에 대한 감상을 넘어 작품의 역사적 배경, 사회적 메시지, 연출 기법 등 다양한 관점에서 토론을 진행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6차	팀원마다 같은 연기를 보고 다른 느낌을 받는 것이 신기하였고 각자의 취향을 이야기하는 것이 재미있었다. 또한 6차 활동으로는 이전에 본 공연인 '광엄 소나타'를 다른 배우들이 연기하는 날로 다시 보게 되었는데, 같은 공연을 보아도 배우에 따라 다른 내용처럼 느껴지는 것이 흥미로워 뮤지컬 한 작품을 여러 번 보는 사람의 심리를 이해할 수 있었다. 시간이 된다면 다른 배우들이 하는 공연도 보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다.

### 활동 사진



### 활동 소감

▶ **오유선** : 같은 뮤지컬을 보며 다른 생각을 가진다는 점이 신기했고 각자의 감명 깊었던 점을 나누며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이번에는 같은 뮤지컬을 여러 번 보며 토의하였는데 관극할수록 다른 느낌을 받고 생각하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배우마다 같은 역할을 다르게 표현하고 디테일이 다른 것을 찾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소모임을 끝내며 활동 시 보았던 뮤지컬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 나에 대한 이야기,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소모임을 통해 나 자신과 나의 관계들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 **정예원** : 소모임 활동을 하기 전에도 자주 같은 공연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번 활동을 계기로 조금 더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어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같은 공연을 보고 같은 캐릭터에 대해서도 서로 다르게 해석한 부분이 있어 신기했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짚어주는 말들을 들을 때마다 설립습니다. 또 공연을 보고 난 후 어떤 기분인지, 어느 부분이 좋았고 어디가 별로였는지 문장으로 정리하는 것이 항상 어려웠는데 이번 활동을 통해 조금이나마 감상을 소리 내 말하는 것이 편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다같이 공연을 보고 난 후 서로의 의견을 편하게 들어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유수빈** : 뮤지컬 관극을 하면서 개인의 취향과 관심사에 따라 다양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기했습니다. 또한 뮤지컬을 관극할 때 사전 지식 없이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작품들이 있지만, 다른 작품들은 배경지식이 있어야 더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는 뮤지컬이 있다는 점도 깨달았습니다. 뮤지컬을 관람 후 토론할 때 느낀 점은 어떤 사람은 그 배우들의 디테일을 중점으로 이야기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전체적으로 구성을 이야기하며 조명 구성 등을 말하는 것을 보아 공연에서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다 다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 생각을 이 소모임을 통해 정리해 보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뮤지컬을 관극하였는지 되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같은 주제에 대해서도 사람들마다 다양한 의견과 관점을 가지고 있어, 이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공유하는 경험을 하면서 저에 대한 이해도와 타인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 제 19회 교수학습지원센터 성과 전시회

# 2024학년도 1학기 학습법 소모임 [영글클럽]

우수

우수팀 명

영화(花)를 피우자

학습 내용

영화 감상 및 공유

학습 기간

24. 5. 8. ~ 6. 19.

팀원

전채민, 오채현, 이해원, 김민지,  
이해린, 이채연(약학과 23)

### 학습 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5/8	19:00 ~ 22:00	과학관 602호	과학관에 모여 함께 영화를 시청한 후 함께 논의해 보고 싶은 주제를 이야기했다. 이를 취합하여 토의를 진행할 주제 2개를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생략)
5/16	20:00 ~ 22:00	과학관 105호	이미 어릴 때 보았을 영화였기 때문에 같이 보지 않고 미리 보고 왔다. 아래와 같은 토론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발전을 인류 행복을 전반적으로 증가시키는가? 만약 그렇다면 어떠한 측면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는가?' 위와 같은 주제로 서로의 생각을 나누었다.
5/23	20:00 ~ 22:00	과학관 105호	영화에서 주제를 발제하여 이에 대해 토론하였다. 주제는 '엠버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부모님이 원 하신다고 생각한 '아버지의 가게'를 물려받아 가업을 잇는 것을 위해 자신이 하고 싶고 재능이 있는 일을 포기하려 한다. 이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가? 스스로가 엠버의 부모님이라면 이러한 생각을 하는 엠버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가?' 위와 같은 주제로 서로의 생각을 나누었다.
6/19	19:00 ~ 22:00	과학관 602호	영화에서 두 가지 토론 주제를 선정하여 토론하였다. 첫 번째는 '한국 사회는 자신의 노력으로 사회적 지위/계급을 바꿀 수 있는 사회인가 아닌가?'이고, 두 번째 주제는 '기생충을 보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영화 연출 장면은 무엇인가?'이다. 위와 같은 주제로 서로의 생각을 나누었다.

### 활동 사진



### 회차별 감상평

1차	오컬트 영화이기에 귀신이나 신앙적인 대화만 나눌 줄 알았다. 하지만 모임을 진행해 보니 생각지도 못한 친밀 문제나 과거 청산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2차	초등학교 때 과학의 날 같은 때에 한 번쯤 봤을 만한 영화이기에 성인이 된 지금 다시 한번 영화를 감상하며 영화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3차	애니메이션의 작품성을 평가하고 애니메이션 내용에 대한 감상을 글로 나누었다. 서로 비슷한 부분을 집중하면서도 서로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을 언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모두 웨이드와 엔버의 사랑에 감동했음을 틀림없다.
4차	많은 해석이 존재하는 영화였던 만큼 여러 관점에서 영화에 대한 감상이 나왔다. 서로 다른 부분을 인상 깊어했고, 그것을 서로 나누어보는 재미가 있었다.

### 활동 소감

▶ **오유선** : 같은 뮤지컬을 보며 다른 생각을 가진다는 점이 신기했고 각자의 감명 깊었던 점을 나누며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이번에는 같은 뮤지컬을 여러 번 보며 토의하였는데 관극할수록 다른 느낌을 받고 생각하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배우마다 같은 역할을 다르게 표현하고 디테일이 다른 것을 찾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소모임을 끝내며 활동 시 보았던 뮤지컬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 나에 대한 이야기,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소모임을 통해 나 자신과 나의 관계들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 **정예원** : 소모임 활동을 하기 전에도 자주 같은 공연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번 활동을 계기로 조금 더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어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같은 공연을 보고, 같은 캐릭터에 대해서도 서로 다르게 해석한 부분이 있어 신기했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짚어주는 말들을 들을 때마다 설 습니다. 또 공연을 보고 난 후 어떤 기분인지, 어느 부분이 좋았고 어디가 별로였는지 문장으로 정리하는 것이 항상 어려웠는데 이번 활동을 통해 조금이나마 감상을 소리 내 말하는 것이 편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다같이 공연을 보고 난 후 서로의 의견을 편하게 들어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유수빈** : 뮤지컬 관극을 하면서 개인의 취향과 관심사에 따라 다양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기했습니다. 또한 뮤지컬을 관극할 때 사전 지식 없이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작품들이 있지만, 다른 작품들은 배경지식이 있어야 더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는 뮤지컬이 있다는 점도 깨달았습니다. 뮤지컬을 관람 후 토론 할 때 느낀 점은 어떤 사람은 그 배우들의 디테일을 중점으로 이야기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전체적으로 구성을 이야기하며 조명 구성을 말하는 것을 보아 공연에서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다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 생각을 이 소모임을 통해 정리해 보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뮤지컬을 관극하였는지 되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같은 주제에 대해서도 사람들마다 다양한 의견과 관점을 가지고 있어, 이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공유하는 경험을 하면서 저에 대한 이해도와 타인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 제 19회 교수학습지원센터 성과 전시회

# 2024학년도 1학기 학습법 소모임 [비교과스터디]

우수

우수팀 명

너가 합격했잖아?  
우리 이런거 안했어

학습 내용

대외활동 및 공모전

학습 기간

24. 4. 28. ~ 5.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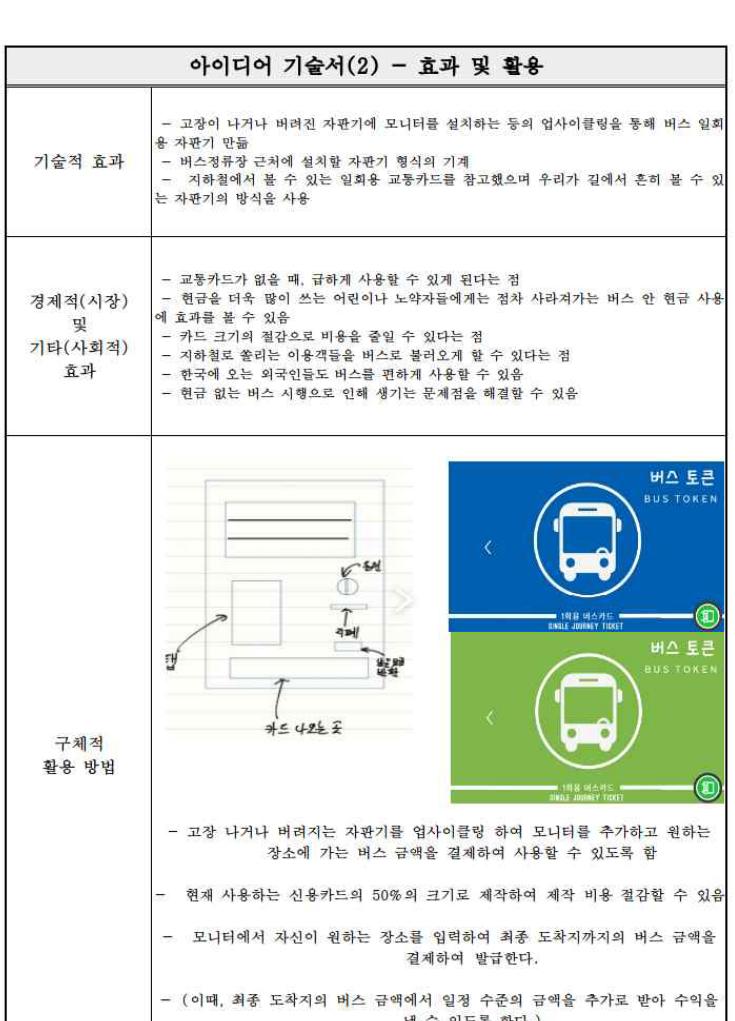
팀원

김가은, 이서연, 정우현  
(미래융합대학 23)

### 학습 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4/28	21:16 ~ 23:23	ZOOM	<p>비대면 학습 시작 사진(필수 제출)</p> <p>비대면 학습 종료 사진(필수 제출)</p> <p>시작 사진(사진과 동일하게 작성): 21:16</p> <p>종료 사진(사진과 동일하게 작성): 23:23</p> <p>개인별로 지금까지 해왔던 대내, 대외 활동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부족한 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앞으로 이 소모임의 방향성이나 활동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p>
5/2	12:00 ~ 13:00	과학관 103호	<p>지금까지 해왔던 개인적으로 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대외 활동에 사용할 팀명을 '3 CHA(삼자)'로 정했고 팀원과 팀에게 맞는 대외 활동을, 사이트를 통해 찾아보았다.</p>
5/9	16:00 ~ 18:00	과학관 103호	<p>팀 공모전 및 대외 활동 지원, 아이디어 제시하기를 주제로 본인이 원하는 활동이나 진로와 연관이 있는 활동에 대해 찾아보고 팀으로 나갈 활동에 대해서도 찾아보았다. 하지만 모두 다 원하는 활동이 없었고 교내에서 진행하는 창의(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있길래 지원했고 아이디어와 사전 조사를 다음 시간까지 해오기로 했다.</p>
5/12	21:04 ~ 23:28	ZOOM	<p>비대면 학습 시작 사진(필수 제출)</p> <p>비대면 학습 종료 사진(필수 제출)</p> <p>시작 사진(사진과 동일하게 작성): 21:04</p> <p>종료 사진(사진과 동일하게 작성): 23:28</p> <p>지난 시간 과제였던 부분을 공유했고 각자 맡았던 부분을 공유했다. 기획안에서 잘못되고 문제 되었던 부분에 대해 다시 회의하고 수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줌으로 한 활동이어서 서로의 의사소통에 원활하지 않았음을 느꼈다.</p>
5/12	21:04 ~ 23:28	ZOOM	<p>창의(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참가 및 발표를 했다. 계속 준비해 왔던 발표를 성공적으로 끝내긴 했지만, 성과를 얻지 못했다. 그 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놓쳤고 아쉬웠는지 다시 생각해 보았다.</p>

### 활동 사진



### 활동 소감

#### ▶ 종합 의견

대학교 와서 대내/외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 맞는 학우들끼리 팀을 이루어 활동해 좋은 경험과 추억을 쌓은 것 같다. 서로가 없었다면 공모전에 나갈 수 없었을 것이고 발전할 수 없었을 것이다. 각자 지금까지 해왔던 활동을 소개했을 때, 다들 각자의 부족한 점을 다른 시각으로 봐줘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대외 활동을 서로 찾아봐 주고 했던 시간을 통해 서로서로 챙겨주고 싶어 하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본인들의 커리어에 얼마나 많은 욕심과 열정이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준비하면서 약간의 의견 트러블이 생겨 날카롭게 말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해 배웠고 이렇게 활동에 대해 열정이 있고 진심이라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보았다. 비록 소모임 마지막으로 활동했던 공모전 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팀원들 간의 팀워크와 개인의 실력을 쌓을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다. 이 소모임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팀으로도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 활동이어서 좋았다. 다음 소모임에도 같이 활동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 김가은 : 소모임 팀장이라는 타이틀이 조금 무거워서 걱정을 많이 했지만, 팀원들이 옆에서 잘 도와주고 협조해 줘서 무탈하게 잘 끝낼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다들 2학년이 되고 대내/외 활동에 관심이 커져 이런 활동을 같이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혼자서는 하기 힘들었던 활동이었는데 다 같이하니깐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활동을 했던 것 같다.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다들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좋을 경험을 팀원들과 같아해서 뜻깊은 시간이었다.

▶ 이서연 : 평소에도 3명 모두 대외 활동 준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번 소모임이 더욱 뜻깊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소모임을 계기로 대외 활동 및 공모전에 대한 서로의 의견 공유 및 대외 활동 지원 등과 같이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원들과 함께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조원들과 함께 더욱 다양한 활동들을 도전해 보고싶다는 생각하였습니다.

▶ 정우현 : 지금까지 해오던 스터디 주제가 아니기에 조금은 우려되는 부분이 많았지만 매주 스터디가 진행됨에 따라 우리가 성장하는 모습, 그리고 개개인의 커리어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집중하는 모습을 각자에게서 볼 수 있었다. 자신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실제로 3명 모두 발전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 제 19회 교수학습지원센터 성과 전시회

# 2024학년도 1학기 학습법 소모임 [비교과스터디]

우수

우수팀 명

학술제 나가보조

학습 내용

학술제 준비

학습 기간

24. 4. 29. ~ 5.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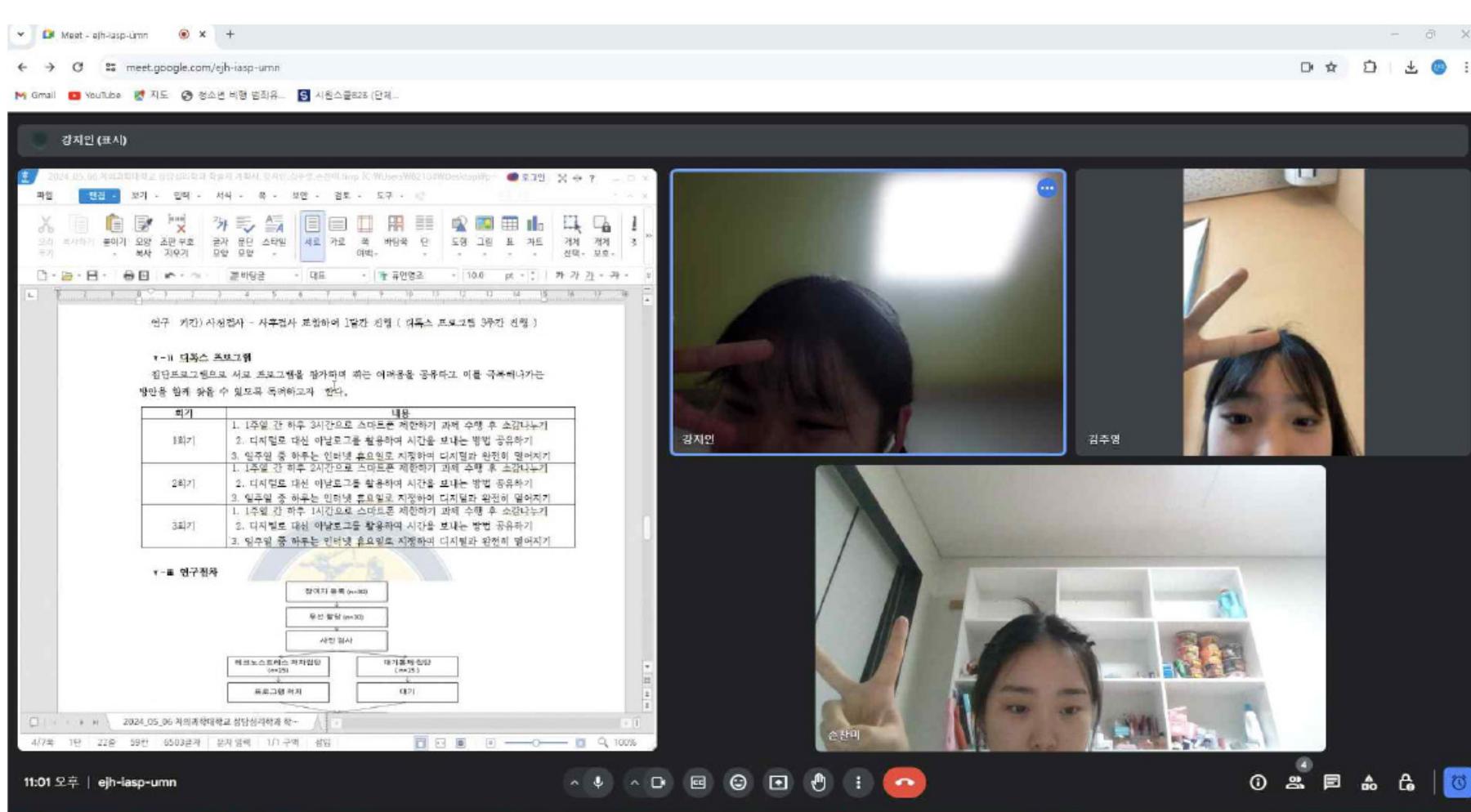
팀 원

강지인, 김주영, 손찬미  
(상담심리학과 21)

### 학습 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4/27 5/4	20:00 ~ 22:00	ZOOM	<주제 선정_아마 최종> 연구 주제에 따른 독립변인 및 종속 변인의 설정 및 근거 논문 찾기 위한 자료조사 * 추가 보고서 제출로 2회차를 하나의 보고서로 작성함
4/29	21:30 ~ 22:30	ZOOM	<주제 선정_최종> 선행 근거 논문 결정 후, 파트 나누어서 자료조사 및 작성
5/6	22:00 ~ 23:00	ZOOM	<학술제 연구계획서 작성> 파트를 나누어 연구계획서 작성을 진행함: 각자 조사하고 정리해 온 조작적 정의 및 가설, 개념 간의 관계성, 실험방법과 모형 등으로 나누었고, 각자 파일을 돌려가며 추가로 자신의 부분을 적고 수정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음.
5/13	16:44 ~ 17:45	ZOOM	<학술제 연구계획서 수정> 담당 교수님께 지난번 작성했던 학술제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피드백 회의를 통해서 척도 추가 및 실험 방향을 재설정 하였음. 또한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먼저 실험을 진행해 보기로 결정함
5/24	18:00 ~ 19:00	ZOOM	<실제 실험 피드백> 실제로 7일간 연구계획서를 바탕으로 실험을 진행함. 한 명은 비교군, 한 명은 실험군, 한 명은 시각적 피드백 제공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각자 실제 실험에서 어떤 부분이 보완되며 좋을지 피드백을 나누었음

### 활동 사진



### 활동 소감

#### ▶ 종합 의견

상담심리학과에서 4년간 공부하면서 실제로 연구를 진행해 보지는 않았는데, 소모임을 계기로 실제 연구를 진행해 보며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 주제 설정부터 쉽지 않았지만, 개인이 만날 때마다, 혹은 회의를 통해 모일 때마다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좋은 주제가 나올 수 있게 되었고 교수님과의 피드백을 통해서 더 성장해 가는 연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대학원을 갈 때 좋은 발판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고 혼자가 아닌 소모임 친구들과 함께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쁜 학기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함께 지지해 주고 격려해 준 팀원들에게 고맙습니다.

CRMMP 연구비를 지원받게 된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정말 기대하지 않고 소모임에서 진행하던 연구계획서를 바탕으로 지원 날까지 계속해서 수정하고 또 수정하면서 지원했는데, 함께 당선되어 연구비를 지원받게 되면서 연구가 더 빛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기뻤고, 함께했기에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강지인 : 상담심리학과에서 4년간 공부하면서 실제로 연구를 진행해 보지는 않았는데, 소모임을 계기로 실제 연구를 진행해 보며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 주제 설정부터 쉽지 않았지만, 개인이 만날 때마다, 혹은 회의를 통해 모일 때마다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좋은 주제가 나올 수 있게 되었고 교수님과의 피드백을 통해서 더 성장해 가는 연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 김주영 : 앞으로 대학원을 갈 때 좋은 발판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고 혼자가 아닌 소모임 친구들과 함께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쁜 학기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함께 지지해 주고 격려해 준 팀원들에게 고맙습니다.

▶ 손찬미 : CRMMP 연구비를 지원받게 된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정말 기대하지 않고 소모임에서 진행하던 연구계획서를 바탕으로 지원 날까지 계속해서 수정하고 또 수정하면서 지원했는데, 함께 당선되어 연구비를 지원받게 되면서 연구가 더 빛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기뻤고, 함께했기에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제 19회 교수학습지원센터 성과 전시회

# 2024학년도 1학기 학습법 소모임 [비교과스터디]

우수

우수팀 명

아리

학습 내용

미술치료 프로그램 기획

학습 기간

24. 4. 26. ~ 5. 31.

팀원

백서연, 장현아  
(미술치료학과 20)

### 학습 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4/26	13:00 ~ 15:00	면학관 216호	<지적장애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기> 지적장애의 정의 및 원인: 지적장애의 개념과 원인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장애 아동의 특성과 요구를 파악. 지적장애의 특징: 지적장애 아동의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특징을 학습하여, 그들의 행동 및 학습 패턴을 이해 지적장애 아동의 학습 지원 전략: 지적장애 아동의 학습을 돋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법과 교육적 전략을 학습 사례 연구: 실제 지적장애 아동의 사례를 통해 그들의 학습과 생활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탐구.
5/17	13:00~15:00	면학관 216호	<장애아동에게 적용할 수 있는 미술 치료적 접근 방법 학습하기와 장애 아동 미술 매체 지원 및 효과 학습하기> 미술치료의 개념 및 중요성: 미술치료의 기본 개념과 장애아동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이해 미술 치료적 접근 방법: 장애아동에게 효과적인 미술치료 접근 방법을 학습 미술 매체의 종류와 특성: 다양한 미술 매체(그리기, 페인팅, 클리주, 조형 매체)의 종류와 특성을 파악 미술 매체의 효과: 각 미술 매체가 장애아동의 신체 발달, 인지발달, 언어 발달, 사회성 측면에 미치는 효과를 학습
5/24	13:00 ~ 15:00	5층 야외	<각 색상이 의미하는 심리적, 생리적 작용 및 치유적 효과에 대해 알아본 후 아동화 사례에서 나타나는 색채의 심리적 의미 파악하기> 색상의 심리적, 생리적 효과: 각 색상이 심리적, 생리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학습 색채의 치유적 효과: 색채가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치유에 미치는 효과를 이해 아동화에서 색채의 의미 분석: 아동화에 나타나는 색채를 분석하여, 색상이 아동의 심리적 상태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파악 사례 연구: 실제 아동화 사례를 통해 색채가 아동의 정서 및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
5/31	13:00 ~ 15:00	5층 야외	<색채심리학 및 장애아동 미술치료, 미술치료 매체와 기법들을 통해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직접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만들어 시뮬레이션한 후, 문제와 보완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본다> 프로그램 구상: 색채심리학 및 미술치료 기법을 바탕으로 장애아동을 위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구상 프로그램 제작: 구상한 프로그램을 실제로 제작하고, 필요한 재료와 절차를 정리 시뮬레이션: 제작한 프로그램을 시뮬레이션하여 실제 적용 가능성을 검토 문제 분석 및 보완 방법: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분석 및 보완

### 활동 사진



### 활동 소감

#### ▶ 종합 의견

위 학습 활동을 통해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를 높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발달과 학습을 지원하는 다양한 방법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1회차 시간을 통해 지적장애의 정의, 특징, 그리고 학습 지원 전략을 다시 한번 복습으로써 장애아동의 개별적인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지원을 제공 방법에 대해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2, 3회차를 통해 미술 치료적 접근방식을 통해 조금 더 미술활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매체와 색채 분석을 통해 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단순 목적을 위한 활동이 아닌, 매체와 색의 이해를 통한 목적 달성을 위한 단계적 접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회차 활동을 통해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하고 실행시키면서 프로그램의 보완점은 무엇이 있고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진행자의 역할에는 어떤 점이 고려되어야 하는지 서로 피드백을 통해 경험해 보면서 내담자의 심리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 백서연 : 대상을 선정하고 그 대상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해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체가 지닌 효과성, 매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겪을 어려운 부분을 인지하며 치료사로서 더 나아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형식적인 도움이 아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위주로 생각하며 다양한 방면에서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나누고 피드백의 과정을 거치는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으로 남았습니다.

▶ 장현아 : 처음 대상을 선정할 때, 어떤 대상자가 적합한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대상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현재의 사회적 상황을 세심하게 분석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제품을 사용하는 대상자뿐만 아니라 그들을 돌보는 보호자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치료사로서 주변 환경까지 고려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연구하고 직접 사용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간편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경험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과정이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제 19회 교수학습지원센터 성과 전시회

# 2024학년도 1학기 학습법 소모임 [비교과스터디]

우수

우수팀 명

오조사마

학습 내용

임상심리사 2급

학습 기간

24. 4. 24. ~ 5.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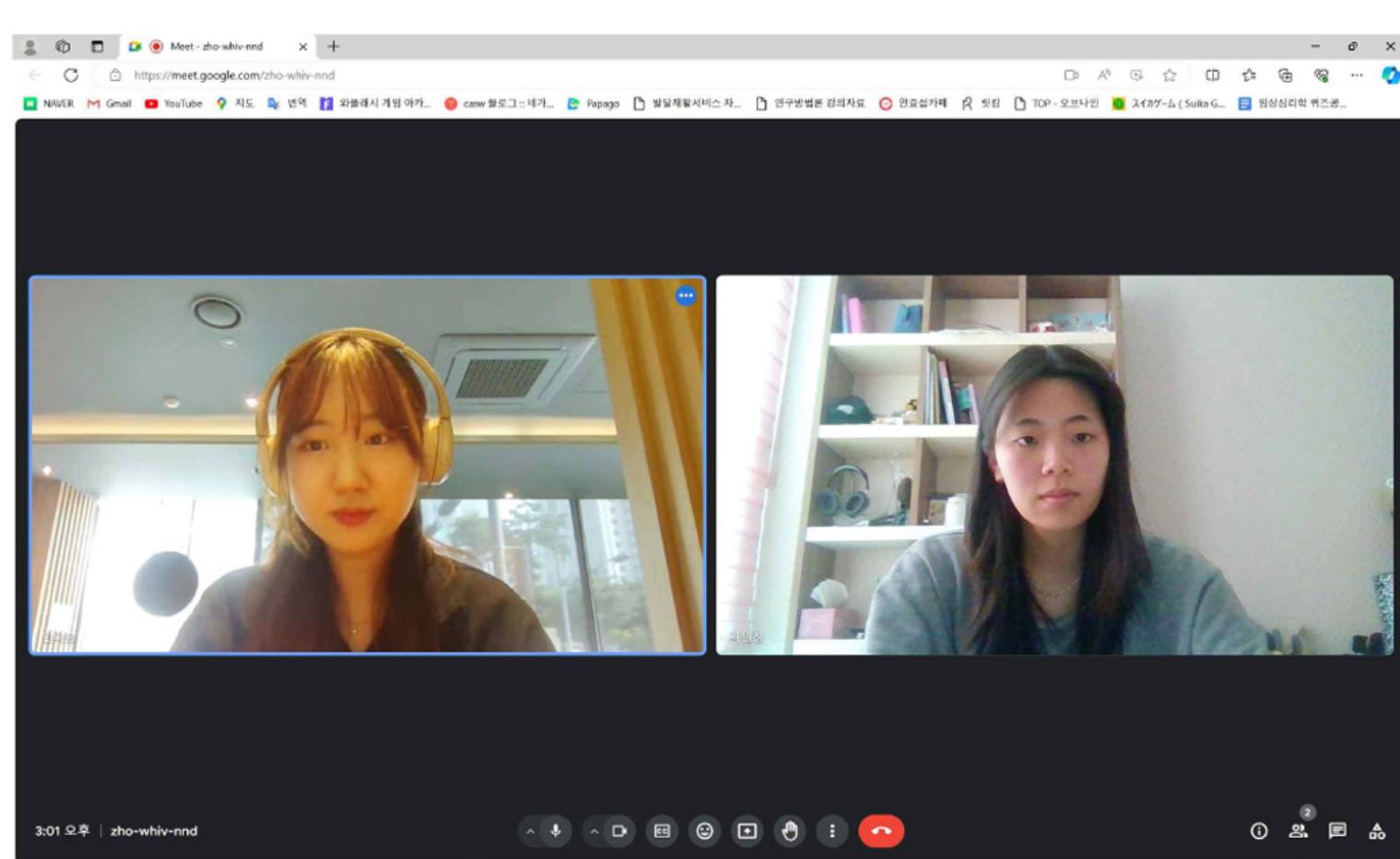
팀원

안다솜, 곽원정  
(상담심리학과 21)

### 학습 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4/24	16:03 ~ 17:58	구글미트	스터디 시간을 구조화하고, 심리학 개론의 부분인 체계적 통계 및 연구방법론 관련 문제들을 함께 분석했다. 회기분석, 디중회기분석 등의 분석 방법 특징을 정리하고, 콜버그의 특성 5 요인, 피아제의 분석 발달단계 등 외워야 하는 문제를 정리한 후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파트인 부분 강화 계획 파트를 다양한 예시와 함께 추가 학습하며 스터디를 마무리했다.
5/3	9:45 ~ 11:45	구글미트	두 번째 스터디 시간에는 중요한 내용에 대한 토의와 문제 풀이를 통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서로 논의해 나갔다. 특히 이상심리학의 장애 진단과 설명에 함께 학습하였으며, 기출 문제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함께 함께 의논하고 각자가 풀이한 내용을 설명 및 설득하는 시간을 가졌다.
5/8	15:26 ~ 17:25	구글미트	이전 시간 연구한 심리검사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진행한 후 핵심 컨센트와 함께 문제 풀이를 진행했다. MMPI-2의 진 단기준 해석 및 코드 쌍 분석 능력을 위해 반복 연습의 시간을 가졌으며, 각각의 기능과 이를 측정하는 검사를 비교, 분석하였다. 추가로 서로 보다 효율적으로 공부했던 암기 방법을 공유하고 다음 학습 범위를 논의하며 스터디를 마무리했다.
5/17	15:01 ~ 17:05	구글미트	지난 한 주간 공부한 임상심리학에 대한 피드백을 진행하고, 별도의 낸 문제를 풀 보며 어려운 점을 공유했다. 임상심리학에서 반응 생소한 이론들과 심리학 개론, 이상심리학, 심리검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공부하며 헷갈리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으며, 다양한 문제의 구성을 정리하고 논의하며 최종 시험 대비를 진행했다.

### 활동 사진



### 활동 소감

#### ▶ 종합 의견

이번 스터디를 통해 많은 배움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팀원 모두 비교과 스터디는 처음인이라 서로에게 더 많은 의지를 하며 공부를 해나갔던 것 같습니다. 모르는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헷갈리는 점이나 작은 점을 보완하는 과정이 매우 큰 도움이 되었으며, 혼자 공부할 때보다 더 큰 의욕으로 공부에 임할 수 있다는 점이 스터디의 가장 긍정적인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스터디 방식을 정하는 과정에서 함께 가능한 시간을 조율하는 것이 쉽지 않기에, 스터디 이외의 시간에 더 많은 공부를 하기로 하였기에 자신의 의지와 노력이 가장 중요했다는 점에서 스터디 시간 외에도 서로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했으면 더 좋았으리라는 생각입니다. 스터디 과정 내에서는 각 기출 문제만 풀어보는 것이 아니라 기출문제를 응용하여 문제를 출제하고 독립적인 학습자료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에 큰 의의와 배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로 출제한 문제의 범위가 동일할 수 있다는 한계와 자격증 시험까지의 시간이 많지 않음을 고려하여 서로 문제 출제 범위를 다르게 지정하기도 하여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른 시간 안에 기출문제를 풀고 풀이를 계속 확인하면서 학습한 내용이 오래 기억에 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스터디 팀원을 위한 문제를 출제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었기에 책임감을 가지고 양질의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모든 개념이 내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스터디 기간이 길지 않았다는 점과 스터디 과정에 조금씩 방법을 찾아가다 보니 초반에는 시간 활용이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점, 스터디원이 많지 않아 상대적으로 역동이 적게 일어났다는 점 등 아쉬운 부분은 분명 존재하지만, 결과적으로 팀원 모두 목표했던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였고 합격 여부뿐만 아니라 스터디 과정에서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여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는 협력적인 과정을 배울 수 있었음에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 **안다솜** : 약 한간 달 자격증 시험을 위해 소모임 스터디에 참여하면서 함께한 팀원에게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서로 모르는 개념을 발견하고,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며 학습의 재미를 알고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 출제와 풀이 과정을 통해 책임감을 느끼며 더 스터디 시간을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일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함께 열심히 한 만큼 좋은 성과를 내고 싶다는 열정이 커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자료를 공유하고 응용 프로그램 문제를 통해 학습해 나가면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확인할 수 있어 좋았고 자격증 시험에 처음 도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임 덕분에 비교적 효율적인 공부법을 찾고,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 **곽원정** : 소모임을 하기 전에 혼자서 자격증 시험 보려고 시도했었습니다. 하지만 공부가 잘되지 않았고 정말 자격증을 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쯤 소모임을 하게 되었고 같이 하는 팀원이 생기니 만회 끼치기 싫은 마음과 책임감이 생겨 공부를 이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혼자였다면 시간이 더 걸리고 어려웠을 텐데 같이 하는 팀원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동기가 되었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스스로 몰랐던 재미와 흥미를 찾게 되었고 더욱 열정이 생겨 열심히 했습니다. 그 결과로 자격증 시험에 합격했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모임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고 이를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제 19회 교수학습지원센터 성과 전시회

# 2024학년도 1학기 학습법 소모임 [비교과스터디]

우수

우수팀 명

수피치

학습 내용

수어

학습 기간

24. 4. 24. ~ 5. 17.

팀원

이혜민, 지소윤, 백지현, 유하나,  
이현주, 조윤수(미술치료학과 21)

### 학습 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5/8	12:00 ~ 14:00	미래관 503호	• 수어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등의 인사하는 법과 수어의 단어를 익힌다. 연습한 인사로 집단원들과 인사를 나누보고 단어를 공유한다.
5/27	21:09 ~ 23:10	ZOOM	특정 단어, 예쁘다, 멋지다, 귀엽다 등을 익히고 결합해, 문장을 만들기를 진행한다. 수어로 이름을 익히고 자기 이름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다.
5/29	12:00 ~ 14:00	미래관 503호	곰 세 마리 동요에 나오는 단어들을 수어로 익힌다. 노래를 천천히 부르며, 수어로 곰 세 마리를 불러보고 익힌다. 마지막에는 원래 속도에 맞춰서 곰 세 마리를 수어로 해본다
6/3	21:03 ~ 23:03	ZOOM	영화 청설을 보고 청각장애, 수어에 대해 느껴보고 영화를 본 감상, 느낌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다. 청설 영화 대사 중 하나를 골라, 수어로 익힌다.
6/5	12:00 ~ 14:00	미래관 502호	근황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이 한 이야기 중에 문장 하나를 골라 수어로 만든다. 마지막 활동이니만큼 다른 집단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수어로 변환하여 이야기한다.

### 활동 사진



### 활동 소감

#### ▶ 종합 의견

우리 모두 소모임이 편하게 생각하고 신청했지만, 생각보다 모두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에 놀라웠고 배우고 가는 게 많은 것 같다. 특히 미술치료라는 학과 특성상, 청각 장애인과 만나는 경험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벗어나 인사, 자기소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다. 시간과 자료가 부족해, 자격증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그럼에도 수어라는 언어에 관심을 두고 더욱 깊이 탐구하며, 자격증에도 도전할 것이다. 이 경험, 배움이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틈틈이 복습하고 학습할 것이다.

▶ **이혜민** : 수어를 배우면서 여러 사람들과 다양한 수어로 소통하는 것이 재미 있다고 생각했고 수어를 통해 한국어에도 다양함이 있고 언젠가는 꼭 수어로 나의 의견을 틀리지 않고 바로바로 표현해 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 **지소윤** : 수피치 활동하기 전 수화에 대해 배우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만 하고 있을 뿐 배울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소모임 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배울 수 있었던 것 같다. 수화를 배우면서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의사소통을 경험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불편함을 알게 되어 수화를 사용하는 분들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다.

▶ **백지현** : 수피치 활동하면서 표정까지도 수화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손동작 하나하나가 의미 있게 다가왔다. 수화를 배우면서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던 것 같다.

▶ **유하나** : 수화가 단순한 손동작의 조합이 아닌 하나의 완전한 언어임을 느낄 수 있었다. 수화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과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낄 수 있었다.

▶ **이현주** : 의사소통을 위해 말뿐만 아니라 동작과 표현을 활용하는 것이 새롭게 느껴졌다. 더 나은 소통과 이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수화를 배우면서 사람들과의 소통에 있어서 언어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느꼈다.

▶ **조윤수** : 그동안 수화를 배워보고 싶다고 생각만 했었는데 실제로 배울 기회가 생기니 의욕이 가득한 상태로 참여할 수 있었다. 다 같이 수화를 배우니 더 재밌게 느껴졌고 뜻깊었다. 그리고 지금 배운 내용에 추가로 더 배워서 수화의 완성도를 높여야겠다고 생각했다.

